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생활체육
친구 '달리'예요~!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달리와 함께 달려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씩!
스포츠 7330으로 생활속에서 건강을 지키세요. 대한민국이 건강해 집니다.

www.sports.busan.kr
2019 11+12

/ Vol. 22

파워 인터뷰

부산광역시골프협회 이길안 회장
부산광역시체육회 근대5종 여자실업팀 조보성 감독

이달의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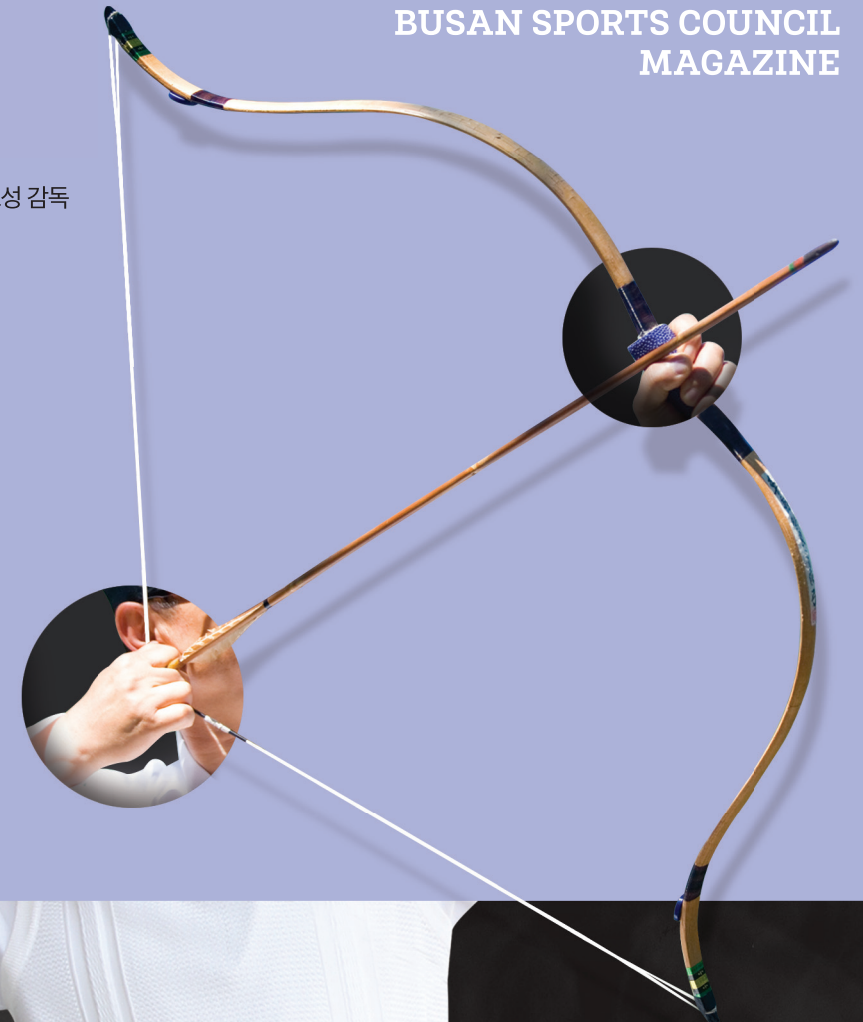
운동선수 진로지원 서비스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위한 스포츠안전재단

이달의 스포츠

궁도

부산체육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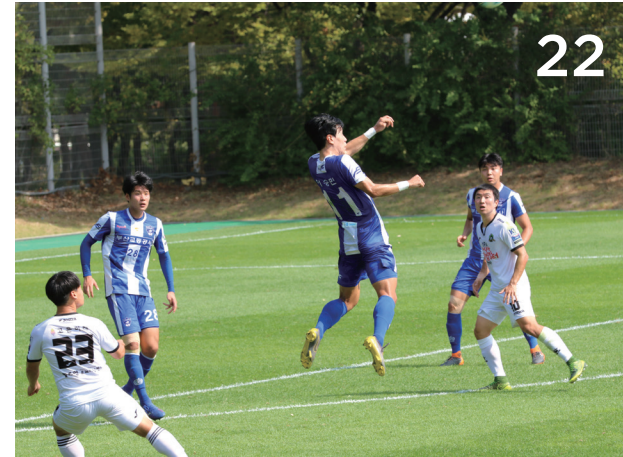
부산체육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2019 11+12 / Vol. 22

발행일 2019년 11월 29일(격월간, 비매품, 통권 제22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장
편집인 김동준 편집취재 장현찬, 문찬식, 김성무, 하나근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T. 051-500-7900)
디자인기획 디자인대훈(T. 051-898-0330)



06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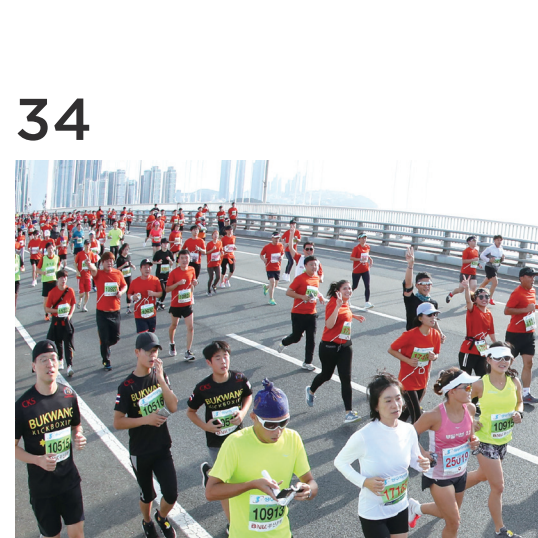
28



10



14



34



60

COVER STORY

표지 기사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자
신의 두려움과 연결돼 있다. 내면으로,
생명의 박동 속으로 나아가라. 미지의
것에 손을 내밀어라. 어둠 속을 걸어
라. 대기를 품으며 그대의 양팔을 벌
려라. 자신의 활사위를 당겨라.

사람과 사람

- 06 파워인터뷰 I 부산광역시골프협회 이길안 회장
- 10 파워인터뷰 II 부산광역시체육회 근대5종 여자실업팀
조보성 감독

특집

- 14 선진국 스포츠시설 정책 II
유희공간의 공유와 스포츠 사회적기업의 활용

이달의 이슈

- 18 운동선수 진로지원 서비스
- 20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위한 스포츠안전재단

스포츠 속으로

- 22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결산

포커스

- 26 제30회 부산시민체육대회
- 28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2019 개최

부산체육의 발자취

- 30 86아시아경기대회·88올림픽대회의 성공과 부산 체육의 기여

부산의 스포츠 소식

- 34 2019 부산바다마라톤대회
- 35 2019 체육진흥세미나
- 36 2019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 시상식
- 37 제8회 부산 초등·중학생 육상경기챌린지대회
- 38 부산국민체육센터
- 40 북구국민체육센터
- 42 영도국민체육센터

- 45 강서구국민체육센터
- 46 부산광역시체육회관
- 47 구·군체육회
- 51 회원종목단체
- 52 부산공공스포츠클럽

스포츠 뉴스

- 54 옷깃만 스쳐도 아픈 대상포진, 극도의 통증을 말하다!
- 56 스포츠 뉴스

이달의 스포츠

- 60 궁도

문화 속으로

- 64 책과 영화

Last One Degree

“99도까지 온도를 올려놓아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영원히 물은 끓지 않는다.

물을 끓이는 건 마지막 1도,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1분을

참아내는 것이다.”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Interview

그들만의 리그 아닌 일상에 꽃핀 골프 Hi~

부산광역시골프협회
이길안 회장



“골프를 축구나
태권도처럼
흔하디 흔한
생활 운동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바라만 봐도 가슴이 뚫린다. 심란했던 마음도 잦아든다. 탁 트인 필드, 온몸을 감싼 바람, 푸르게 오른 잔디, 흙에 볼 들어가는 소리, 드라이버 샷의 짜릿함까지 완벽했다. 20여 년 넘게 골프는 삶의 우선순위였다. 골프로 건강을 되찾았고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두 아들을 주니어 선수로 이끌었던 부산광역시골프협회 이길안 회장, 그의 목표는 한결같다. 골프를 축구나 태권도처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 운동으로 안착시키는 것. 모두에게 열린 '일상다반사 골프'는 그의 오랜 바람이었다. 마치 러너스 하이(Runner's High)처럼 공치는 순간 맛보는 스윙어스 하이!(Swinger's High!)를 만인이 경험할 수 있길, 이길안 회장의 골프 예찬이 시작된다.

골프로 시작한 특별한 인생 2막, 스타 발굴에도 힘써

시작은 건강 문제였다. 부산에서 수십년간 출판업을 해온 이길안 회장, 밤을 낮 삼아 일하던 시절,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친구의 권유로 골프채를 잡은지 20여 년. 골프는 그야말로 신세계였다. 개인 강습을 따로 받진 않았다. 골프 월간지를 재차 읽고 밑줄 긋고 핵심을 적어가며 이론을 익혔고 틈날 때마다 필드로 갔다. 쉽게 익히기 어려운 운동이지만 한번 빠지면 클럽을 놓지 못한다는데 이길안 회장도 그랬다. '내게 이렇게 딱 맞는 옷이 있었을까', 셔츠 만큼 순식간에 빠져들었고 오랜 세월 함께했지만 단 한번도 지루한 적은 없었다고. 1999년 부산광역시골프협회 이사로 협회와 연을 맺어 2019년 2월 수장이 되기까지 이길안 회장의 인생 2막 주제는 단연 골프다. 그의 베스트 스코어는 -4언더파인 68타, 가장 자신 있는 클럽은 숏 아이언, 핸디캡은 한 자릿수.

“협회에는 골프와 함께한 제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1986년 8월 협회창립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1986년 12월 29일 서라벌호텔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는데 그 당시 동성화학공업 백제갑 대표가 초대 회장이셨어요. 협회는 정일미, 허석호, '슈퍼땅콩'이라고 불리는 김미현을 비롯해 현재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에서 맹활약 중인 김보경, 김예진, 오지현과 최혜진 선수 등 인재 발굴과 지원에 주력해왔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자주 골프장을 오가던 두 아들에게도 골프를 가르쳤던 이길안 회장, 중2때 골프에 입문한 첫째아들이 올해 37세, 골프로 박사학위를 따고 대학에서 강의중이다. 당시 박세리 선수를 롤 모델 삼아 성공한 프로골퍼로 키울 요량으로 열심히 지원했지만 첫째아들은 선수 대신 지도자의 길을 택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매력은
골프만큼 정직한 운동도
없다는 겁니다.”

부산 출신 선수들 눈부신 대활약, 열린 스포츠로 자리매김했으면

“협회에 오래 몸담다 보니 주니어 선수 시절 때부터 인연이 된 선수들이 많아요. 지난 11월 3일 프로골퍼 최혜진(롯데골프단) 선수가 시즌 5승을 거두며 대상포인트, 상금, 평균타수 등 전 부문을 휩쓸었는데요. 부산 출신 선수가 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자식 일처럼 마음이 들뜨고 기분이 좋죠. 최혜진 선수 부모님에게 축하 문자를 보냈더니 감사 답문이 왔더라고요. 김보경(요진건설 여자골프단) 선수에겐 제가 멘토인 셈인데, 중2, 주니어 선수 때부터 봤죠. 도울 수 있는 선에선 조언하고 지원해주려고 애썼어요. 다른 운동은 대개 금메달리스트가 판도를 평정하는데 골프는 유독 상황 변수가 많고 멘탈 스포츠라서 계속 우승을 이어간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인지 부산 출신 선수들이 쟁쟁한 월드스타를 제치고 우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울컥’하는 마음이 커요.”

20년 전에 비하면 현재 협회에 등록된 주니어 선수들이 절반가량 줄 셈이다. 운동도 시기나 흐름을 타게 마련인데, 한창 박세리 선수가 주가를 올릴 시점에 비하면 지금은 다소 한풀 꺾인 느낌일까. 3년 전, 골프도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한 단계로 통합됐다.

몇몇 아는 사람들끼리 울타리를 쳐놓고 즐기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모두에게 열린 생활스포츠로 자리매김하는 데 부산광역시골프협회의 주도적인 노력과 구체적인 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란 걸 이길안 회장은 잘 안다.

골프를 즐기는 사람이면 누구나 회원 가능, 협회와 회원 윈-윈 전략

“현재 협회에 등록된 선수는 주니어 선수 80명 가량이 전부예요. 하지만 앞으로는 성인 25세부터 장년층까지 골프를 하는 이들은 누구나 아마추어 선수 등록이 가능토록 하려고 해요. 80여 명의 주니어 선수들이 내는 1년에 5만원 회비만으로는 협회 운영은 어려운 게 현실이고, 무엇보다 이제는 골프의 생활체육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죠. 회원 수를 확보하면 협회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테고, 또한 골프를 적극 홍보하면서 회원들에게 관련 행사 등 각종 소식을 재빨리 전할 겁니다. 또 협회와 계약된 골프장, 스크린골프장을 회원이 이용 시 20~30프로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게끔 추진하려고요. 협회나 회원 모두가 윈-윈하는 전략 아닌가요?”

스크린골프장이 들어설 초창기 1인당 2만원했던 비용은 만원 정도로 내렸다. 골프 인구가 많아지자 우후죽순 스크린골프장도 늘어났고 가게마다 가격경쟁을 치열했던 것. 그만큼 골프 수요자가 많아졌다는 반증, 이길안 회장이 얘기하는 협회 등록 선수를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현실적이고 타당하게 들리는 이유다. 한때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골프가 많이 대중화되었다고 하지만 여러 면에서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은 건 사실이다. 쉽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진정한 생활 스포츠가 되기까지 갈 길이 먼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변화하고자, 바뀌고자, 노력하고자 하는 도전과 시도 자체는 언제나 빛을 낸다.

인생 님은골 골프,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말 것

“샷을 할 때마다 손에 전해지는 샷감을 뭐랄까, 짜릿해요. 잘 맞은 샷이 핀 근처에 제대로 붙었다든지, 어려운 트러블 샷 상황에서 기가 막힌 샷으로 파를 만들었다든지... 무엇보다 가장 큰 매력은 골프만큼 정직한 운동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과의 싸움, 108mm를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가야만 끝이 나죠. 거센 바람이 불거나 세찬 비가 와도 기댈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 강한 정신력으로 불안과 두려움, 걱정을 이겨내야 해요.”

골프에서 삶의 희노애락(喜怒哀樂)을 본다는 이길안 회장, 뭘 해도 잘 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종일 걸려 넘어지고 맥 빠지는 날도 분명 있다. 골프는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는 우리네 인생과 참 닮은 구석이 많다고.

“지난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기장군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열린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19’을 참관했어요. 3년간 15억을 투자한 행사인데, 기대 이상이었죠. 기장군을 골프 메카로 만들면 제대로 된 세계 속의 관광 도시, 부산을 알릴 수 있겠다는 확신이 섰죠. 숙박시설을 잘 갖춘 해운대와 불과 20여 분 거리에 있는 데다 기장군에 현재 4~5개의 골프장이 있는데 더 확충할 필요가 있어요. 부산은 바다와 인접했으니 요트, 크루즈 등 해양레저산업과 연계해도 좋겠고요.”

더 많은 이들이 골프에 빠지고 즐기고 향유하길, 특별한 이들만 누리는 닫힌 운동이 아닌 누구나 언제든지 참가 가능한 열린 스포츠 이길, 그가 수십 년간 골프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솔한 이유를 모두가 공감할 수 있길, ‘골프 사랑’으로 이 자리에 선 부산광역시골프협회 이길안 회장의 바람은 간절함의 무게만큼이나 강한 추진력이 담겼다.





극적 시나리오 꿈을 현실로(feat. 2020년 도쿄올림픽대회)

1912년 제5회 스톡홀름올림픽대회에서 정식 채택됐지만 근대5종은 아직 우리 국민들에게 낯설다. 현재 대한근대5종연맹 부회장인 당시 최귀승 선수가 1964년 도쿄올림픽대회에 참가한 것이 최초 국제경기 참가 기록이었고 이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던 근대5종은 최근 들어 꾸준한 연맹의 지원과 유소년 선수육성 프로그램을 통한 선수 발굴로 빛을 발하는 중. 현재 한국 근대5종은 황금기를 눈앞에 뒀다.

올림픽 메달 후보로 꿈을 만한 세계 랭커가 여럿이기 때문. 핵심 랭커로 꼽히는 국가대표 정민아(28), 김세희(25) 선수를 맡아온 부산광역시체육회 근대5종 여자실업팀 조보성 감독이 2020년 도쿄올림픽대회를 주목, 기대하는 이유다. 55년 전 도쿄에서 첫걸음을 뗀 한국 근대5종, 정확히 같은 장소에서 메달을 거둔다면 이보다 더 극적인 시나리오는 없을 터다.

“수영과 육상에 강한 정민아 선수는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어렵게 데리고 왔어요. 매 순간 승부욕에 불을 지핀 모습이었죠. 연습할 때도 허투루 하는 법이 없어요. 욕심 많고 지기 싫어하고 남다른 면모를 지닌 선수죠. 3년 후배인 김세희 선수는 펜싱과 육상에 강한데 타고난 노력파예요. 노력을 이기는 재능은 없다는 걸 이 선수를 보며 느낍니다. 한국은 희한하게도 올림픽대회에서 근대5종이 노메달인데 두 선수 모두 도쿄올림픽대회 때 수치를 벗겠다는 각오 또한 대단해요.”



Interview

은밀하고 민첩하게 끈질기고 위대하게

근대5종 여자실업팀
조보성 감독

철인들의 예측불가,
드라마틱한 파노라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저도 진 게 아니다. 참가한 선수 모두에게 박수는 마땅하다. 하루에 수영, 펜싱, 승마, 사격, 육상 5개 종목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정한다. 웬만한 배짱, 패기, 체력 없이는 뛰어들기 힘든 스포츠. 근대 올림픽대회의 창시자 피에르 드 쿠베르탱 남작은 근대5종 선수를 가리켜 “올림픽대회의 진정한 선수”라 했고 중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완벽한 스포츠인”이라 했다. 팽팽한 긴장감이 도는 훈련장 부산체육고등학교에서 만난 근대5종 부산광역시체육회 여자실업팀 조보성 감독, 부산의 근대5종 통령을 위한 의미 있는 한걸음을 내딛는 중이다.



미치지 않으면 당할 수 없다, 나를 온전히 잇는 물두

연습은 항상 실전처럼. 그래야만 경기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 선수 각자의 텐션을 최대한 높일 수 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 40분 부산체육고등학교 수영장 입수로 하루 훈련을 시작한다.

“보통 200m 자유형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영법(泳法)을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20분 맨손체조를 하고 자유형으로 시작해 배영, 평영, 접영을 번갈아 가며 근육을 풀죠. 선수들은 A4 용지 크기의 동그란 패들(paddle)을 끼고 물살을 가르는데 물의 저항력을 한층 키워 근력 강화를 키우는 훈련을 해요. 1시간 반 정도 하고 나면 온몸에 힘이 쏙 빠져 거의 탈진 상태가 되죠.”

아침식사 이후 받는 개인 PT(Personal Training)는 주로 웨이트 트레이닝이다. 오후 훈련은 사격과 육상 연습에 집중. 마치는 시간은 늦은 오후 6시쯤이다.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 쉴 틈 없이 강도 높은 훈련의 연속이다. 선수들마다 약한 종목이 있기에 마린, 약체 종목의 기량과 체력을 키우는 데 집중한다. 장시간 흔들림 없는 집중력 유지 또한 빠질 수 없는 훈련 중 하나.



조 감독의 주문은 훈련장 이곳저곳에서 찌렁찌렁 울린다. 특히 승마 훈련을 할 때는 목소리가 더 매서워진다. 선수와 말 사이의 호흡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리듬을 타야 하는데 시합 당일 말에 적응할 시간은 단 20분에 불과, 말과 교감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다. 게다가 선수들이 제일 크게 다치는 종목이 승마라서 조 감독은 한 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평보(말이 천천히 걷는 상태)하지 말고 속보해야지!”, “리듬을 타란 말이야 리듬을!”, “고삐를 너무 당기면 안 돼!”

가쁜 숨을 내쉬며 마스크를 벗은 선수들의 얼굴은 방금 세수를 한 듯 흠뻑 젖었다. 펜싱 훈련에 들어가면 세심한 목표를 정하라고 말한다. 어제 30번 찔렀다면 오늘은 32번, 이런 식의 분명한 목표 말이다.

“팍 찌르고 나가야지 왜 가려다가 말아! 시선 어디 뒀어. 칼만 꽃지 말고 시선도 상대방에게 꽃아야지!”

몸 관리는 하루 만에 이뤄지는 게 아닌 만큼 평상시 선수들의 생활습관도 세심히 신경 쓰고 조언하는 조 감독, 한창 즐기곤 젊은 나이에 술한 재미를 뒤로 하고 몸의 패턴이 깨지지 않도록 매사 조심하는 선수들을 보면 대견하고 고마울 따름이라고.

비인기종목의 탈바꿈, 골든 러시 기대주로

원래 수영선수였던 조보성 감독이 근대5종으로 종목을 전환한 건 고1 동계훈련 때였다. 태종대 3.8km 뛰는데 중장거리 선수를 다 제치고 1등으로 골인, 그때 근대5종을 제안 받은 게 인생의 전환점이 된 셈이다. 부산체육고등학교를 졸업, 한국체육대학교를 거쳐 부산광역시체육회 근대5종 여성 실업팀 감독으로 온 지는 채 1년이 안 되었다.

“근대5종은 위기를 겪었어요. 올림픽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종목이라며 다들 찬사를 보냈지만 관중수, TV시청률, 티켓 판매량 등이 저조했거든요. 전 세계 회원국이 104개국에 불과하고 청소년이 배우기 어렵다는 점도 걸림돌이었고요. 게다가 세부 종목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참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3년 2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는 하계올림픽 핵심종목(Core Sports) 탈락 직전까지 가기도 했죠.”

최근 10년간 경기 시간 단축, 복합(사격+육상)경기 도입, 기준 점수 축소 등 박진감을 높이려는 자구책을 끊임없이 제시한 국제근대5종경기연맹, 보통 5개 종목을 특성에 따라 두세 곳으로 나누어 진행하던 것을 한 경기장에서 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소요시간도 5시간 이내로 줄였다. 조보성 감독의 설명대로 국제근대5종경기연맹의 노력 덕에 근대5종의 박진감은 타 종목에 뒤지지 않았다. 다섯 종목의 드라마틱한 구성, 후반부로 갈수록 긴장감은 고조됐고 특히 마지막 복합 종목에서는 관중의 열광은 배가 됐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역전 반전 매력

“근대5종은 전통의 강호 러시아와 독일, 또 좋은 체격조건을 갖춘 유럽선수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어요. 그래서 체격에서 밀리는 우리 선수들에게 더 절실한 건 강한 정신력이었죠. 경기가 끝날 때까지 관중도 선수도 마음을 놓을 수 없어요. 3개 종목을 선두로 마쳤더라도 마지막 사격과 육상(레이저런)에서 단숨에 뒤집히는 게 다반사니까요. 기량만 좋으면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정신력이 좌우해요. 시합 당일의 컨디션과 분위기에 따라 기복이 무척 심하거든요. 그래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연습을 지나치리만큼 강조하는 편입니다. 경기 시간은 7시간 반에서 8시간 정도, 근대5종은 뭐랄까. 미치지 않으면 당을 수 없는 스포츠랄까요.”

국제근대5종경기연맹이 지정하는 자격대회에서 5100점 이상을 획득한 선수를 대상으로 4차례 예선전을 벌여 최종 36명이 올림픽대회에 참가, 아시아에선 6명이 참가 가능하다. 한국 여자선수에게 주어진 티켓은 단 두 장뿐. 2020년 도쿄올림픽대회를 준비중인 정민아, 김세희 국가대표를 물심양면 응원, 지원하는 일 외에 부산을 넘어 한국을 대표할 차세대 근대5종 여성 세계 랭커를 발굴하는 일에 주력하겠다는 조보성 감독, 그의 거침없고 지침 없는 행보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PROFILE

조보성 감독

2006. 12. ~ 2011. 12.
부산체육고등학교 경기지도자

2013. 3. ~ 2014. 7.
부산체육고등학교 감독(기간제교사)

2014. 7. ~ 2018. 12.
부산체육중학교 경기지도자

2019. 1. ~ 현재
부산광역시체육회 감독

Leader History

2017.
- 전국소년체전 단체3위
20년 만에 첫 입상 꿈나무 지도자

2018.
- 전국소년체전 단체 1위
25년 만에 첫 금메달
- 2018 팔렘방 아시안게임
개인 2위 김세희

2019.
- 2019 세계선수권대회 계주 3위
- 우리나라 여자팀 첫 입상
- 현재 부산광역시 근대5종팀 감독
- 국내대회 2회 우승 및 다수 개인우승



선진국 스포츠 정책 사례

Sports Facilities Policy in Advanced Countries



선진국 스포츠시설 정책 II

유휴공간의 공유와 스포츠 사회적기업의 활용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김미옥 선임연구위원

지난 호에 이어 유휴공간의 활용과 사회적 경제주체를 활용한 선진국 스포츠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프랑스는 사용하지 않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유휴공간을 민간에게 무상 임대해 새로운 스포츠 공간으로 조성했고, 스웨덴은 낡은 냉동창고를 개조해 청소년의 스포츠와 문화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 사례는 공공체육시설은 반드시 공공이 조성해야만 한다는 인식을 넘어 민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스포츠를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우리도 교각하부, 자투리 땅, 낡은 공장 등 우리 주변에 있는 버려진 공간들을 스포츠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영국의 스포츠 사회적기업과 같이 전문성과 공공성을 보유한 사회적 경제주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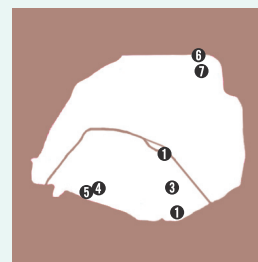
TERRAIN DE JEUX



프랑스 스포츠 경기장
사업 추진 지역 및
파리 15구 파델경기장

유휴공간을 민간이 스포츠 공간으로 개발

프랑스 파리는 2016년 도시 내 유휴공간을 새로운 스포츠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파리, 스포츠 경기장(Paris, Terrain de Jeux)'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사용되지 않는 공간, 상가, 주차장 등을 민간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사업자가 시설투자와 운영하는 방식이다. 단, 파리시와 협약에 따라 일정 시간을 학교나 문화센터 등에 제공하고 이외 시간은 유료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에 기여하도록 했다. 파리시는 센 강 쉼리 다리 지역 등 7개 사업을 선정했는데 파리 4구 센 강 쉼리 다리 인근 지역에는 기존 도로를 보행자 도로로 전환하면서 주차장 공간이었던 650m에 쥘라인, 에코 어드벤처 등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을 조성했고, 파리 13구 기존 낙하산 하강장에는 지붕을 설치하고 탈의실과 샤워실을 갖춘 실내 축구장을 조성했다. 파리 15구에는 주변 학교에서 공동으로 사용했던 운동장 1,375㎡에 2층 규모의 파델(스쿼시와 유사)경기장과 카페테리아를 설치해 학교 체육활동(216시간) 및 문화센터 체육교실(168시간)에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사업 지역 지도

- 1 파리 4구, 익스트림 스포츠장
- 2 파리 13구, 실내 축구장
- 3 파리 13구, 전기 카트장
- 4 파리 15구, 파델경기장
- 5 파리 15구, 실내 인공암벽장
- 6 파리 19구, 권투 및 서킷트레이닝장
- 7 파리 19구, 골프연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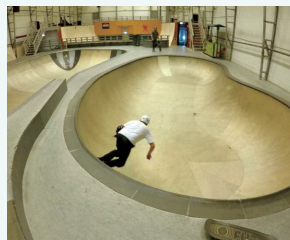


스웨덴 프리스푸셋

FRYSHUSET프리스푸셋(Fryshuset)
건물 전경과 체육시설**냉동창고를 청소년 스포츠문화 공간으로**

프리스푸셋은 스톡홀름에 있는 청소년센터로 1984년에 사용하지 않는 냉동창고를 리모델링해 만들어졌다. 시설 명칭인 프리스푸셋은 원래 스웨덴어로 '냉동창고'라는 의미이다. 프리스푸셋은 초기에는 청소년을 위한 활동 공간으로 출발했으나, 현재는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로 함께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복합체육공간을 기반으로 청소년 복지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학교와 청소년센터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다. 프리스푸셋은 집, 농구장, 보드 경기장, 댄스홀, 헬스장 등 다양한 스포츠공간을 보유하고 있는데 학교 프로그램이 없는 방과 후 시간에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개방된다. 학교는 12~15세의 의무교육 과정과 15~18세의 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지만 교육과정은 프리스푸셋의 특색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규 커리큘럼 외 시간에 운영되는 특별 활동들은 정규 교과과정에서 흥미를 잃은 학생에게 흥미를 되찾아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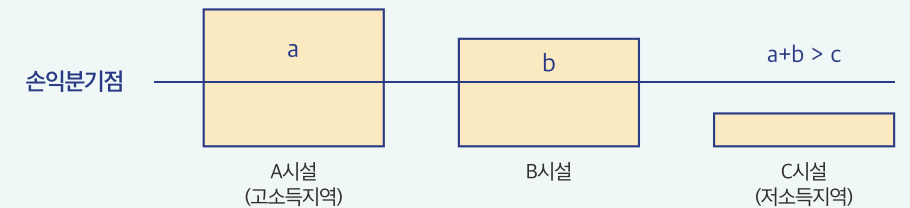
또한 청소년과 성인이 함께 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일탈을 막고 사회 속에서 융화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프리스푸셋의 운영은 민간 시민단체인 YMCA가 초기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전임 인력은 약 480~550명 정도이며 강사 및 자원봉사자를 포함해 1,000~1,200명 정도가 운영하고 있다. 운영비의 구성은 시 35%, 정부 5% 그리고 나머지는 NGO에서 지원하고 있다.



영국 공공체육시설

GLL**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 사회적기업이 운영**

영국의 대표적 스포츠 사회적기업인 GLL(Greenwich Leisure Limited)은 자선단체 성격의 스포츠 사회적기업(Charitable Social Enterprise)으로 스포츠 분야 최초로 사회적기업 인증마크를 획득(2010년)했고, 스포츠 분야 최초로 영국 정부의 빅소사이어티상(Big Society Award)을 수상한(2011년) 기업이다. GLL은 30개 이상 지자체와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250개 이상 공공 스포츠 시설과 57개 도서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더 좋은 서비스(Better Service), 더 좋은 비즈니스(Better Business), 더 좋은 사람(Better People), 더 좋은 공동체(Better Community)를 운영목표로 설정하고 연간 방문객 4,000만 명, 학생 60,000명 대상 수상안전교실 운영, 여학생 스포츠교실 11,000개, 7,000개 장애인 스포츠교실, 60세 이상 노인 스포츠클럽 운영 등의 성과를 이뤘다. 생활체육뿐 아니라 60개 종목의 2,000명의 꿈나무 선수들에게 훈련지원금 지급하고 450개 이상의 지역 스포츠 이벤트 개최하는 등 엘리트체육과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공공체육시설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지만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유도한다. GLL의 경우 하나의 공공체육 시설만 위탁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공공체육 시설을 함께 위탁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통한 원가절감과 운영 효율화를 통해 수익 극대화를 추구한다. 소득수준과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 지역 스포츠 시설에서 달성한 초과 수익으로 저소득 지역의 공공체육시설 운영적자를 보전하는 로빈훗 운영모델로 전체적으로 흑자운영이 가능하다. 고소득 지역과 저소득 지역의 체육시설 서비스 요금을 차별화해 저소득, 소외 지역에서 운영되는 시설의 이용료는 고소득지역 스포츠 시설 이용료의 2분의 1 수준으로 책정해 저소득 계층의 스포츠 참가를 지원하면서도 도심의 고소득 지역에서 남긴 수익으로 저소득 빈곤지역 시설 운영적자를 보전하는 원리이다.

영국 스포츠 사회적기업
GLL의 로빈훗 모델**국내 유희공간 활용 사례**

국내에서도 최근 유희공간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부산시도 대규모 유희공간 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수영강변 수영고가교 아래 유희공간을 약 90억 원을 들여 복합생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수영고가교 하부 B-Con 그라운드 조성사업'이 추진중이다. 이 사업은 1980년 고가도로 건설 이후 방치된 공간으로 있던 고가도로 아래 유희공간을 체형·축제마당, 청년창작·창업공간, 쇼핑몰, 주민휴게·체육 시설 등 복합생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부산시의 부족한 스포츠 공간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증가하는 스포츠 수요를 고려하면 도시지역에서의 유희공간 활용 시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 친화성과 지역 친밀도가 높은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해,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문화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2019년 처음 문화체육관광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예술법인·단체(『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스포츠클럽(『생활체육진흥법』 제9조),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 대상을 다양화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사업(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스포츠 사회적기업 육성은 아직 시작 단계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방자치 단체가 사회적기업에게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기회를 제공해 안정적 운영구조를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예비 사회적기업 제도와 같이 스포츠 사회적기업이 육성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운동(은퇴)선수 진로지원 서비스

1

진로지원 서비스

운동선수들의 진로와 경력개발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컨설팅, 교육, 멘토링, 진로지원을 제공하는 종합서비스(상담, 교육·취업지원 연계)

- 1. 지원대상** 운동(은퇴)선수(대한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에 운동선수로 등록한 자)
- 2. 신청기간** 연중 수시모집
- 3.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welfare.sports.or.kr)
- 4. 지원내용** 1:1 진로상담 및 취업계획 수립, 유관기관 교육 및 취업 관련 정보 제공, 스포츠 분야 진로 교육(자격증 대비반 등), 각 분야 현직자와의 멘토링 프로그램, 개인별 기초역량 교육 지원, 기업분석 및 채용정보 제공 등
- 5. 문의** ☎ 02-419-1114



대한체육회는 2013년부터 운동(은퇴)선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권역별 진로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원스톱 진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은퇴선수 진로지원센터가 서울에만 위치해 지방 거주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으나 전국 5개 권역별(경상/부산, 수도권/서울, 경기/수원, 충청/대전, 전라/광주) 센터 개소를 통해 지방에 거주하는 은퇴선수도 편하게 오프라인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은퇴선수 진로지원센터는 은퇴선수 및 현역 운동선수 모두 이용 가능하다. 은퇴선수는 취업·경력 관련 상담 또는 진로지원 서비스, 잡(JOB) 매칭 서비스, 멘토링, 찾아가는 운동선수 진로교육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역 운동선수도 센터 방문 시 진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진로지원 서비스는 오랜 시간 운동에 전념해 온 운동(은퇴)선수들이 새로운 취업 목표를 설정하고 구직 기술을 향상해 제2의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별 특성에 맞춘 1:1 진로·취업 상담,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면접 컨설팅, 취업 성공 선배 멘토링, 취업 교육, 창업 교육, 스포츠지도자 자격증 준비과정 등을 제공하고 있다.

2

잡(JOB)매칭 서비스

운동선수에게 취업희망 분야의 채용정보를 자동 매칭해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

- 1. 주요내용** 채용정보 종합제공 : 워크넷, 사람인 등 채용정보 통합, 운동선수에게 신청분야의 채용정보를 선별해 온라인(홈페이지, 메일)으로 정보를 제공
- 2. 지원대상**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에 운동선수로 등록한 자
- 3. 이용방법** 회원가입 후 이용
- 4. 문의** 대한체육회 교육복지부(☎ 02-2144-8162)
- 5. 서비스주소** welfare.sports.or.kr

3

은퇴선수 진로지원센터

은퇴선수에게 진로 및 취업을(상담, 교육, 취업알선, 사후관리 등)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취업지원 서비스

- 1. 위치** 서울올림픽파크텔 19층(서울 송파구 방이동)
- 2. 문의** ☎ 02-419-1114
- 3. 서비스주소** welfare.sports.or.kr

권역별 은퇴선수 진로지원센터



전국 대표번호 1544-6679

경상센터(부산), 충청센터(대전), 경기센터(수원), 전라센터(광주)

※ 지방권역센터 운영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찾아가는 운동선수 진로교육

선수시절부터 듀얼커리어(운동과 학업)와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준비하기 위해 경력개발의 중요성과 준비과정을 소개하는 교육

- 1. 지원대상** 중학교, 고등학교 운동부(대한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에 운동선수로 등록한 자)
- 2. 신청기간** 연중 수시모집
- 3. 접수방법** 공문접수
- 4. 교육내용** 1강 목표설정의 중요성, 2강 운동선수의 경력전환, 3강 흥미로운 직업정보 탐색, 4강 스포츠 관련 자격정보 찾기, 5강 스포츠 분야 직업의 세계, 6강 나의 꿈, 미래설계
- 5. 강사** 대한체육회 진로교육 전문강사
- 6. 문의** 대한체육회 교육복지부(☎ 02-2144-8165)

5

국가대표 진로상담 프로그램

전직 또는 진학에 대한 정보와 상담을 희망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진로상담 지원

- 1. 지원대상** 국가대표 운동선수
- 2. 신청기간** 연중 수시모집
- 3. 접수방법** 전화접수
- 4. 주요내용** **취업전문성 강화** 취업기술, 이력서 작성, 면접 기술 등
진로설계 경력개발 계획, 진학 및 교육과정 선택 등
심리상담 직업흥미검사, 성격유형검사 등
※ 대상에 따라 시간 및 내용 맞춤 지원
- 5. 문의** 대한체육회 교육복지부(☎ 02-2144-8164)

운동을 더 안전하게!
운동의 기쁨을 더 크게!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위한 스포츠안전재단

스포츠안전이란?

넓은 의미는 국민의 스포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사회 환경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위험성의 예측, 대응, 점검관리, 제도개선을 하는 총체적인 안전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며, 좁은 의미는 스포츠 활동 전, 중, 후 모든 프로세스에 발생하는 위험 요소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며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이러한 스포츠 안전을 책임지는 곳이 스포츠안전재단이다.

스포츠안전재단이란?

스포츠안전재단(Korea Sports Safety Foundation)은 운동 상해 방지 활동과 운동 부상자에 대한 위로 및 보상 등 공익사업과 더불어 건강·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은퇴 선수들의 복지증진 활동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이다. 스포츠안전재단의 주요사업은 스포츠안전교육, 스포츠안전공제, 스포츠안전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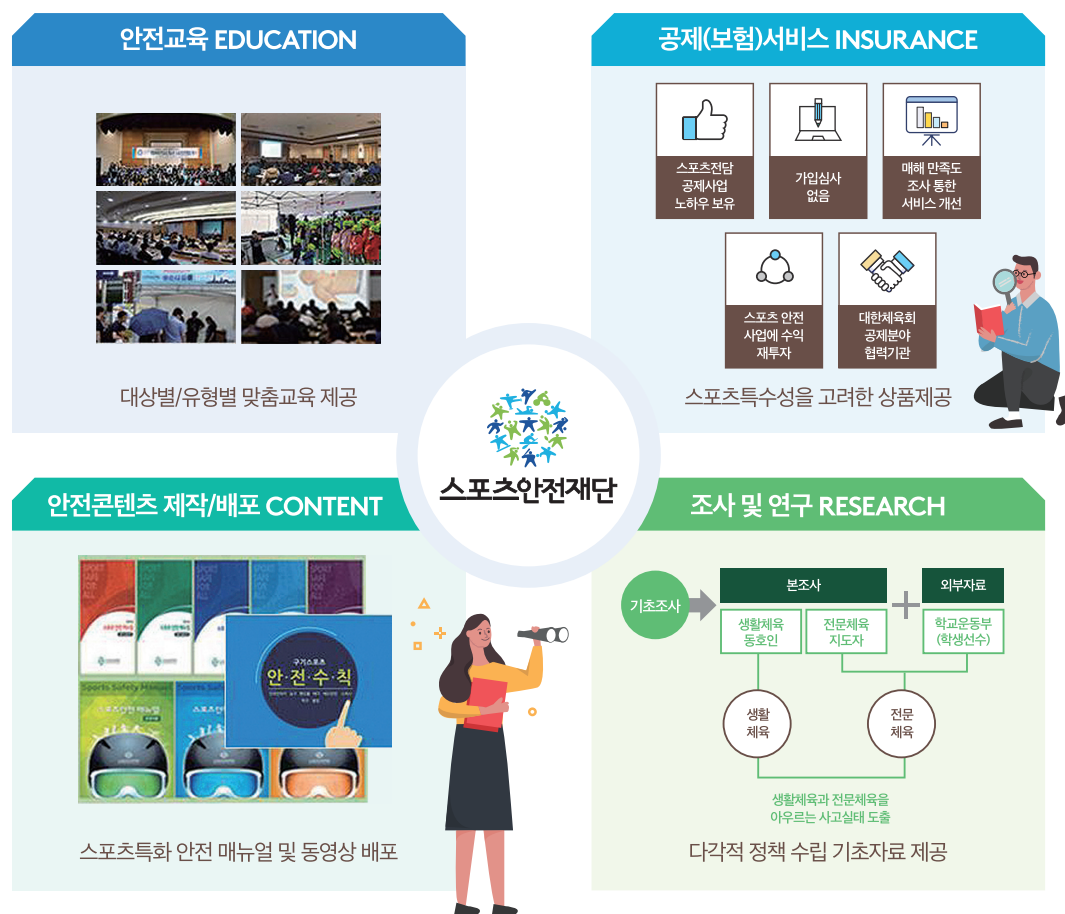
01 스포츠안전교육은 위험 대처에 대한 방법, 지식, 요령뿐만 아니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스포츠안전 지식 필수 교육이다. 스포츠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스포츠안전도 향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안전한 스포츠 활동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02 스포츠안전공제는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스포츠안전재단의 목적에 따라 국민의 스포츠 활동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한 상해를 보상하는 서비스이다. 최근 대형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법에 의거하여 체육 분야의 보험가입도 의무화되었다. 스포츠안전재단은 스포츠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개발해 다년간 운영해 온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스포츠 환경 및 고객의 욕구(needs)에 따라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03 스포츠안전연구의 경우 재단에서는 스포츠안전 분야 체계구축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스포츠 부상 경험자의 세부 특성 파악을 위한 ‘스포츠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시행했고 공제서비스 보상사례집을 제작했다. 이러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스포츠안전과 관련한 데이터를 축적해 교육과 공제사업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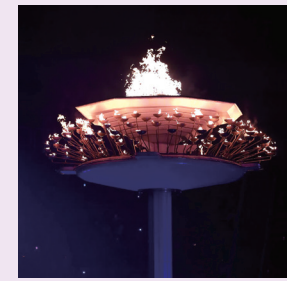
<http://www.sportsafety.or.kr>



전국체육대회를 거슬러 오르면 일제강점기인 1920년, 서울 배제고보에서 열린 '전조선야구대회'가 그 시초다. 올해 제100회를 맞은 전국체육대회는 1986년 제67회 이후 33년 만에 다시 서울에서 개최됐다. 그 의미만큼 특별함은 더해졌다. 지난 100년간 전국체육대회는 한(恨)의 민족을 뚫돌 뭉치게 한 원동력, 승리의 희열을 선사한 해방구였다. 열광하고 도전하며 부딪히고 실험했던 한국체육 한 세기 역사가 지나간다. 과거를 성찰하고 현재를 돌아보며 미래를 그려간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7일간의 여정은 끝났다. 이로써 새로운 한국체육 100년 시작을 알리는 터닝 포인트를 맞은 것, 이제 한국체육 백년대계를 기록할 시간이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결산 다시 꽃피다 한국 부산체육

한 세기 도전과 실험, 찬란한 백년대계 이정표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는 133개의 기록을 달성, 지난 대회에 비해 총 22개의 신기록이 쏟아졌다.



더 풍성한 더 역대급, 대회의 감동 극대화

지난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의 숨 가쁜 대장정은 고무적, 희망적이었다. 평화·화합·감동체전을 목표로 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는 17개 사·도의 총 47개 종목(정식 45, 시범 2) 24,988명의 선수단(선수 18,588명, 임원 6,400명)과 미국, 일본, 독일 등 18개국 1,864명의 해외동포선수단이 참가해 스펙타클한 열전을 펼쳤다. 세계신기록 2개, 세계타이기록 2개, 한국신기록 8개, 한국주니어(J)신기록 6개, 한국주니어(J)타이기록 4개, 대회신기록 99개, 대회타이기록 12개 등 총 133개의 기록을 달성, 지난 대회에 비해 총 22개의 신기록이 쏟아졌다. 풍성한 기록뿐 아니라 역대 최대 규모의 성황봉송, 올림픽 규모의 개회식도 돋보였다. 특히 제1회 대회 개최지를 기념하려고 옛 배재보고 운동장인 역사박물관 진입로에 기념표석을 설치, 제막식을 열어 역사의 현장을 기념한 건 깊은 인상을 남겼다. 성화 봉송은 1,100여 명 최대 주자가 13일이라는 최장기간, 2,019km 최장거리로 진행됐다. 1982년 제63회 전국체육대회 이후 최초로 전국 단위로 시행해 의미와 감동을 더했다. 대한체육회는 2020년 대한민국 근대 체육 100년, 대한체육회 100주년을 앞두고 홍보 부스를 운영해 '대한민국 체육의 역사'를 시민들에게 알렸고 종목별 경기장을 순회하며 바르고 건강한 스포츠 문화 확립과 스포츠 인권 향상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개최지인 서울시가 우승을 차지, 경기도가 준우승, 2020년 개최지인 경상북도가 선전 끝에 3위를 했다. 부산은 지난해보다 4계단 오른 종합 8위로 대회를 마쳤다. 14년 만에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던 부산은 올해 10위권 안으로 복귀, 준수한 성적을 거둔 셈이다. 부산선수단 총감독 김동준 부산시체육회 사무처장은 "단 4점 차이로 8위에 그친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지난해 보다 3,000점 이상 올리자는 목표는 달성하긴 했지만요. 대회 내내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어요. 매년 3,000점 이상 점수를 끌어올려 부산에서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2024년에는 우승을 목표로 될 생각합니다"라며 소회와 향후 계획을 전했다.

십여 년 침묵 깬 금발 캐기, 연이은 환호성

고대하고 기다렸던 부산의 첫 금메달은 남자 고등부 육상 800m에서 나왔다. 작년보다 5초 이상 기록을 앞당긴 윤준원(부산체고3) 선수의 기록은 1분54초99. 결승경기에서 2초 이상 앞당기며 개인 신기록도 달성했다. 제98회 전국체육대회 때는 아쉽게도 예선 탈락,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은메달에 그친 윤준원 선수는



Busan Sports



이번 대회를 앞두고 절치부심(切齒腐心)했다. 고등학생으로는 마지막 전국체육대회 참가라 이를 악물고 연습한 결과가 좋았다. 조정 고등부에서도 희소식을 전해왔다. 7분34초28의 기록, 손효정-김소영 조(부산체고)가 여자고등부 더블스킬 결승전에서 남녀 통틀어 제81회 부산 전국체육대회 이후 19년 만에 금메달을 거머진 것. 훈련 과정에 어려움도 컸다. 선수들의 주 연습장소인 낙동강은 오전에는 바람이 불지 않지만 오후에는 바람이 거세 연습을 멈춰야 할 때가 많았던 것. 그래서 새벽 훈련도 마다치 않았던 그들이다. 함께 호흡 맞춘 기간이 짧고 두 선수 모두 조정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메달 욕심이 크지 않았다고 부담을 덜고 차분히 경기에 임했는데 오히려 힘을 뺀 자세가 금메달을 얻는 플러스 요인이지 않았을까. 이들은 부산 조정 유망주로 급부상했다. '한국 요트의 지존'이라 불리는 하지민(해운대구청) 선수는 제86~91회 대회 8년 연속을 포함해 14번째 종합우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해양대학교에 다니던 2009년 제90회 대회 때부터 시작해 11년 연속 우승의 주인공, 고교시절 금 2개를 더하면 전국체육대회에서 딴 금은 모두 13개다. 씨름에서는 22년 만에 남자고등부에서 금을 켜다. 차민수(반여고)는 남자고등부 100kg급(역사급) 결승에서 박민교(용인고)를 2-0으로 눌러 우승을 차지, 부산 고교 선수가 전국체육대회 씨름에서 우승한 건 1997년 박상민 선수 이후로 처음이라고. 대회 마지막 날까지 야구 일반부(동의대)와 베드민턴 남자일반부 단체전(삼성전기)에서 금메달 소식이 들려왔다. 부산 동의대가 우승을 차지했다는 희소식. 2001년 제82회 전국체육대회 우승 이후 18년 만에 정상에 선 동의대. 동의대 선수로서 금메달을 땀던 정보명 동의대 감독은 선수와 감독으로 우승을 차지하는 영광을 얻는다.

선수들 피와 땀 빛은 메달, 기쁨 탄식 희비 오가

다이빙에서도 기대 이상의 승전보가 들려왔다. 우하람(국민체육진흥공단) 선수가 금메달 두 개나 득한 것. 남자일반부 스프링보드 3m에 이어 스프링보드 1m에서도 금메달을 따면서 2020년 도쿄올림픽대회에서 다이빙 사상 한국 첫 메달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손현욱(부산체고) 선수는 역도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 89kg급 경기에서 인상 142kg, 용상 186kg 합계 328kg을 들어 올려 금 3개를 한꺼번에 획득하며 이목을 끌었다. 레슬링 윤석기(동아대) 선수는 남자대학교 자유형 65kg급 결승에서 천선우(대전 한남대) 선수를 테크니컬폴로 눌러 금메달을 따면서 지난해 은메달에 머문 아픔을 씻었다. 태권도 변길영(동아대) 선수는 남자대학부 87kg급 결승에서 박인호(경기도 용인대) 선수를 10-9로 누르고 학교에 두 번째 금을 안기는 주역이 됐다. 부산체육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7년부터 3년 연속 전국체육대회 우승을 거머진 것. 박대훈(부산시체육회) 선수는 사격 50m 권총에 이어 공기권총 단체전에서도 우승, 2관왕에 올랐지만 공기권총 개인전에서는 아쉽게도 은메달에 그쳤고 김종현(KT) 선수는 남자일반부 50m 소총복사에서 우승했다. 세팍타크로 남자고등부는 5연패를 여자고등부는 첫 금메달을 얻었다. 남자고등부는 세종시 세종하이텍고에 2-1 역전승을 거두며 우승, 여자고등부는 접전 끝에 충남 서천여고를 꺾고 금메달의 차지해 첫 동반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반면 아쉬운 소식도 있었다. 제97회와 제98회 대회 때 금메달을 딴 복싱 라이트웰터급 박원빈(부산광역시체육회) 선수는 2년 만에 다시 금메달에 도전 그러나 아쉽게도 은메달에 그쳤다.

11 + 12



magazine 부산체육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최우수선수(MVP)는 대회 5관왕을 달성한 수영 김서영(경북도청) 선수로 선정됐다.



THE 100th NATIONAL SPORTS FESTIVAL

삶을 영롱하게 스포츠, 다시 꽃핀 한국체육 100년

대회 소식 중 중목을 바꿔 올림픽대회에 도전, 금메달의 주인공이 된 궁도 김경원(부산시체육회) 선수가 단연 화제였다. 레슬링 국가대표였고 전국체육대회 레슬링 중목에서 2관왕 화려한 전적의 소유자 김경원 선수, 취미로 시작한 궁도가 삶의 새로운 목표가 된다. 1992년 대구에서 열린 제73회 전국체육대회 레슬링 자유형 88kg급과 그레코로만형 81kg급에서 2관왕을 차지하는 등 각종 대회에서 금메달을 땀던 그가 은퇴 후 궁도를 시작하며 실력을 키워간다. 2013년 제9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면서 탄력을 받아 이번 대회에서 마침내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최우수선수(MVP)는 대회 5관왕을 달성한 수영 김서영(경북도청) 선수로 선정됐다. 2017년부터 매년 3관왕에 올랐던 김서영 선수는 개인혼영 200m, 개인혼영 400m, 계영 400m(대회신기록), 계영 800m(한국신기록), 혼계영 400m(대회신기록)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생애 첫 5관왕에 올랐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폐회사에서 "정정당당하게 최고의 경기를 보여준 선수단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내년 있을 도쿄올림픽대회에서도 뜨거운 열정을 맘껏 보여주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100년의 스포츠는 건강한 스포츠, 국민 행복을 선도하는 스포츠로 거듭나야 합니다. 선수와 지도자, 동호인을 포함해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스포츠를 가깝게 느끼고 즐기고 경험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라며 다시 피어날 한국체육 100년을 맞는 각오와 다짐을 전했다.

24
25

FOCUS
01

제30회 부산시민체육대회 부산 체육 동호인들의 꿈과 희망을 보다

시민 누구나 즐기는 축제의 한마당

부산 체육 동호인들의 최고 체육대회인 부산시민체육대회가 지난 10월 19일(토) 사직실내체육관의 종목별 경기장에서 배구 종목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다.



올해로 30회를 맞이한 부산시민체육대회는 어린이부터 최고령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세대가 아우르는 축제의 한마당이었다. 부산시민체육대회는 16개 종목에 16개 구·군체육회의 회원종목 단체선수 및 임원 5,000여 명이 참가해 열전을 펼쳤으며 전 연령대에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한마당이었다. 이날 부산시민체육대회와 함께 2019 전국체육대회 해단 및 유공자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

개회식을 시작으로 부산시민체육대회 태동과 발전과정을 담은 샌드아트 상영, 국민의례, 내빈소개, 전국체육대회 유공자 시상식이 끝난 후 대회사에서 오거돈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은 “올해 30회를 맞이한 부산시민체육대회가 부산 스포츠 동호인들의 진정한 생활체육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자 여러분과 대회 참가를 위해 노력하신 선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대회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우정을 나누는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후 대표선수 선서에서는 전년도 종합우승인 부산진구소속 배드민턴 참가 선수인 허경호 선수와 국학기공 참가 선수인 정윤례 선수가 선수 대표선서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선서문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고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민체육대회를 하자고 선서했다.

우리 모두가 즐긴 부산시민체육대회

이번 부산시민체육대회 중 부산사직종합운동장 아시아드조각광장에 마련된 시민참여 체험종목 부스에서는 부산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전통놀이체험, 베이스볼 마니아 바운스, 3단 농구 바운스, 싸커돔 바운스 등 스포츠체험 행사를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이번 시민참여 체험 종목 활동을 통해 평소 운동은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었던 이들에게 스포츠 참가 기회를 부여해 적극적인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는 계기를 마련기도 했다.

부산 체육 동호인들을 스포츠에 대한 열기 하나로 모았던 제30회 부산시민체육대회는 종목별 개별 시상을 끝으로 열전을 마무리 지었다. 부산시민체육대회는 결과에 관계없이 부산 체육 동호인들의 축제의 장이었던 만큼 경기력상, 성취상, 경기운영상, 질서상, 화합상, 건강상 등 6개 분야로 나눠 다양하게 시상했다.

전년 대비 가장 성적이 향상된 사하구가 성취상, 경기 성적이 가장 우수한 북구가 경기력상을 차지했다. 질서상은 동구, 영도구, 중구, 화합상은 강서구, 금정구, 남구가 받았다. 경기운영상은 게이트볼협회, 파크골프협회가 거머쥐었으며 건강상은 서구,부산진구, 해운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이 각각 차지했다.



종목별 경기결과

구분	우승	준우승	공동 3위	장려
검 도	사하구	해운대구	기장, 강서구	-
게이트볼	사상구	동구	금정구, 부산진구	-
국학기공	부산진구	연제구	남구	해운대구
그라운드골프	금정구	동래구	북구	사상구
당 구	북구	사하구	중구, 강서구	-
배 구	연제구	동래구	사하구, 동래구	-
배드민턴	남구	연제구	사상구, 강서구	-
볼 링	동래구	해운대구	사상구, 강서구	-
족 구	북구	사하구	동래구, 부산진구	-
줄 넘 기	부산진구	동래구	북구	남구
체 조	북구	사하구	강서구	수영구
축 구	기장군	남구	해운대구, 사상구	-
탁 구	사상구	북구	금정구, 사하구	-
태 권 도	사하구	서구	영도구	남구
테 니 스	북구	기장군	금정구, 남구	-

FOCUS
02

골프 투어 메카로
급부상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2019 개최

구름갤러리 부른 나이스 샷! 골프 여제들의 열혈승부

2019 시즌 28번째 대회다. LPGA(미국여자프로골프)와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에서 활약 중인 스타들이 총출동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나흘간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LPGA 인터내셔널 부산(구 아시아드CC, 파72/6,726야드)에서 펼쳐진 것. 특히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은 세계적인 골프 코스 설계의 거장 '리스 존슨'의 설계로 코스를 전면 리뉴얼한다. 대회 전부터 입소문이 자자했다. 이번 대회로 부산 기장군이 차세대 골프 메카로 떠오른 건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다.



초호화 라인업! 탑 랭커 집합, 역대급 대회

올해부터 열리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BMW 코리아가 주최하고 LPGA가 주관, KLPGA가 로컬 파트너 투어로 참여하는 대회였다. 규모뿐 아니라 세계 최고 선수가 총출동하는 초호화 라인업을 앞세운 '역대급' 대회였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상위 랭커 선수 50명,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상위 랭커 선수 30명, 초청선수 4명 총 84명의 선수가 출전. 세계 랭킹 1위인 고진영(24, 하이트진로) 선수가 출사표를 던졌고 KLPGA의 신인왕(2017), 상금왕(2018)을 거머쥐고 LPGA의 최고 권위 대회인 US여자오픈에서 우승을 차지, 일찌감치 LPGA 신인상을 확정 지은 세계랭킹 3위의 이정은(6(23, 대방건설) 선수도 부산을 찾았다. 그 외에 김세영, 김효주, 허미정, 브룩 헨더슨, 넬리 코다 등 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선수들과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1위인 최혜진 등 탑 랭커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 때문에 부산과 경남권 갤러리들의 반응은 대회 이전부터 뜨거웠다. 특히 대회 첫날인 24일 비바람이 몰아치는 악천후에도 선수들의 환상적인 플레이를 보려고 이른 아침부터 약 4,500여 명 가량의 갤러리들이 대회장을 찾았다. 이에 화답하듯 선수들 역시 번덕스러운 날씨에도 첫날부터 버디를 몰아치며 멋진 플레이를 선보였다. 대회 1라운드부터 고진영 선수를 비롯해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대회 2라운드에는 이른 아침부터 갤러리들이 몰려들어 오후 2시 기준 티켓박스를 통과한 인원은 1만1,000명. 공식 집계 마감되는 6시까지 추산하면 1~2라운드 통합 관중수는 평일 골프 관중수로는 최고 수준이었다. BMW 코리아는 공식 갤러리 집계 결과 1~4라운드 합산 7만여 명(70,394명) 이상이 방문, LPGA투어 대회 중 최대 수준의 관중수를 기록했음을 밝혔다.

태극기 가득 채운 리더보드, 환상적인 역전승 이어져

대회 영예의 우승자는 장하나 선수였다. 발목 부상을 이기고 연장전 고투 끝에 얻어낸 짜릿한 역전승. 3라운드 선두 이소미와 이승연이 1,4오버파로 부진한 중 다니엘 강과 장하나의 진격이 거셌다.

다니엘 강은 당일 8언더파, 장 하나는 7언더파를 몰아치며 치열한 우승경쟁을 이어갔고 1타차 2위를 달리던 장 하나는 17번 홀에서 선두 추격에 성공하며 19언더파 동물, 연장전에 돌입했다. 연장전 세 번째 홀 다니엘 강의 버디 퍼팅이 빗나갔고 장 하나는 침착하게 퍼팅에 성공해 30만 달러와 우승컵의 주인공이 됐다. 우승을 한 장하나 선수 이외에도 양희영이 16언더파로 3위, 전인지와 이소미가 12언더파 공동 4위에 올랐고 김민선, 임희정, 박민지, 김세영, 고진영, 이승연이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리며 리더보드를 태극기로 가득 채웠다. 크리스틴 길만(22, 미국)이 13번 홀에서 생애 첫 홀인원을 기록하며 1억 6천만 원 상당의 BMW 뉴 7시리즈를 부상으로 받았다.



갤러리 눈높이 맞춘 내일 기한 행사로 대회 빛내

마이크 완 LPGA 커미셔너는 "LPGA투어 서른 번째 대회인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이 올 시즌 LPGA 투어 중 가장 큰 흥행을 거둔 대회였다"며 호평했다.

부산을 비롯해 울산, 대구, 마산 등 경남 지역의 갤러리들도 가족 단위로 대회장을 찾으면서 숙박, 교통, 외식 등 관련 산업도 덩달아 활기를 띄었다. 또 BMW 코리아는 지난 6월 새롭게 출시된 BMW 뉴 7시리즈 130대를 투입, 프리미엄 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하면 18번 홀 그린 주변에 1,000석 규모의 대규모 갤러리 스탠드와 라운지를 마련해 우승자가 탄생하는 감격적인 순간을 보다 많은 이들이 즐기도록 했다. 갤러리 플라자에서 다양한 식음료 판매는 물론, 뉴 8시리즈를 국내 최초 공개하는 등 모터쇼를 능가하는 다양한 차량 전시로 이목을 끌었다. 고진영, 전인지, 폴라 크리머, 김예진 등 선수들은 팬들과 만남의 자리를가졌는데 큰 호응을 얻었다.

또 폴라 크리머, 다니엘 강, 허미정, 리디아 고는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 위한 골프화, 셔츠, 모자, 퍼터 등 애장품을 자선경매에 기부하는 등 나흘간 이어진 다채롭고 뜻 깊은 행사는 대회 내실을 다지는 데 한몫을 했다.

※ 사진제공 : BMW Korea



86아시아경기대회· 88올림픽대회의 성공과 부산 체육의 기여

01

아시아 스포츠의 판도 바꾼 86아시아경기대회

1986년 제10회 서울아시아경기대회가 가진 역사적 의미는 더없이 각별했다. 86아시아경기대회는 대한민국 건국 40여 년은 물론 반만년 한민족 역사상 최대의 대업(大業)이었다. 말 그대로 한국 체육 사에 찬연한 금자탑을 세운 개국 이래 최대의 스포츠 행사였을 뿐 아니라, 식민지배와 남북분단의 불행한 근현대사를 딛고 쌓아온 대한민국의 저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세계에 선보인 사실상 최초의 기회였기 때문이었다. 86아시아경기대회와 88올림픽대회를 연달아 유치한 이후 한국 체육계는 개최국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유망주 육성 등 국제경기력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86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총 27개국 종목에 걸쳐 대회에 참가한 선수단 수만 해도 3345명에 이르렀다. 1984년 LA올림픽대회 금메달리스트인 유도의 하형주가 금메달을 따내며 세계 정상급의 기량을 다시 한 번 과시했고, 태권도 플라이급의 김영식과 레슬링 그레코로만형의 김영구, 이삼성도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부산 체육의 가장 값진 성과는 탁구에서 나왔다. 당시 광성공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유남규는 세계 최강의 중국 탁구를 무너뜨리고 남자 단식에서 올림픽 금메달과 다른 없는 우승을 차지, 대회 최고의 돌풍을 일으켰다. 1986년 6월 착공, 3년여 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된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이후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요트경기장, 2000년 제81회 부산 전국체육대회 요트경기장, 2002년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요트경기장으로 활용되는 등 아시아권 최대 규모의 요트경기장으로 거듭났다.

02

88올림픽대회 세계 4위의 기적

86아시아경기대회는 88올림픽대회로 가는 하나의 중요한 교두보였을 뿐 최종 기착지는 아니었다. 88올림픽대회는 탈아시아급 수준으로 성장한 한국의 스포츠가 세계 최고 기량의 선수들이 충돌하는 올림픽대회에서도 과연 통할 수 있을지 가능해볼 수 있는 최초의 대회가 됐다. 88올림픽대회는 1972년 제20회 뮌헨올림픽대회 이후 12년 만에 동서 진영이 동시에 참가한 올림픽대회로 그 의미가 매우 깊었다. 금메달 1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1개. 한국 선수단의 놀라운 성적은 세계 스포츠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88올림픽대회에서 거둔 한국의 쾌거에는 부산 체육의 기여도 컸다. 특히 요트 종목

은 부산에서 개최돼 해양도시로서의 면모를 한껏 발휘할 수 있었다. 88올림픽대회에서 가장 성과가 좋았던 종목은 역시 86아시아경기대회부터 기대를 모았던 탁구였다. 당시 약관 20세에 불과했던 유남규는 한국 선수들끼리 금메달 쟁탈전을 벌인 사상 초유의 결승전에서 김기택을 이기고 올림픽대회 최고의 탁구 남자단식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만리장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철옹성과 같았던 중국 탁구의 아성을 누르고 한국 탁구의 눈부신 성과를 견인한 유남규, 현정화 남녀 두 명의 부산 선수들은 이후에도 계속 한국 탁구의 간판으로 대활약하면서 각종 세계대회에서 눈부신 전적을 쌓아 나갔다. 부산 체육이 88올림픽대회의 성공에 기여한 것은 단지 경기에서 뿐만은 아니었다. 86아시아경기대회 때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은퇴 경기인을 파견해 각 종목의 효율적이고 매끄러운 운영에 기여했으며, 일부 종목을 직접 개최함으로써 88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

한편 86아시아경기대회에 이어 88올림픽대회에서도 요트종목 전 경기가 수영만요트경기장에서 열렸다. 특히 88올림픽대회 때 수영만요트경기장에서는 성화대가 마련돼 있어 별도의 개막식을 치를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 박종우 선수는 88올림픽대회 요트부문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한편 부산은 올림픽 열기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조직위의 결정에 따라 대구, 광주 등의 도시와 함께 축구 종목 일부 경기를 진행하기도 했다.

03

국내 체육 환경의 변화와 부산 체육의 성장

1980년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체육계 전체가 폭발적 성장기를 보냈다. 86아시아경기대회와 88올림픽대회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전 체육계가 한마음으로 뭉쳐 유망주 발굴과 경기력 향상에 나섰고 여기에 우리 정보의 진흥책이 조화를 이루면서 한국 체육의 눈부신 도약이 이뤄진 덕분이었다. 이 시기 우리나라의 체육은 이전과 비할 수 없는 훨씬 체계적인 선수 발굴과 육성 시스템이 정착됐으며, 이는 1982년 뉴델리아시아경기대회, 1984년 LA올림픽대회를 지나 86아시아경기대회와 88올림픽대회에서 찬란한 열매를 맺었다. 1970년대까지 국제대회에서 거의 존재감을 내비치지 못하고 있던 한국 체육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국제화를 넘어 체육 강국의 입지를 확고하게 마련했다. 1980년대로 돌입하면서 부산시체육회 이사진의 총사퇴 후 재구성이라는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1980년과 1982년 제61회와 제6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6위를 기록하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부산광역시체육회는 학교팀과 실업팀의 창단을 유도함으로써 부산 체육의 저변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1989년까지 부산광역시체육회에 소속된 학교 운동선수는 총 35개 종목에 걸쳐 5,000명 이상에 이르렀으며, 실업팀 또한 18개 종목, 31개 팀에 이르러 소속선수 수만 해도 총 200여 명에 달하는 성장세를 나타냈다. 이러한 부산 체육의 양적 성장은 1980년대에 치러진 전국체육대회에서 부산이 꾸준한 성적을 유지하는 밑바탕이 됐으며, 각종 국제대회에 우수한 선수를 발굴, 육성해 공급함으로써 우리 체육의 국제적인 도약에 많은 기여를 했다. 이 시기 중점적으로 이뤄진 지역 내의 경기시설 확충도 부산 체육의 활성화와 성장에 큰 기여가 됐다. 1980년대 초반부터 잇따른 프로스포츠 출범과 이에 따른 연구구단의 활약도 부산 스포츠의 활성화에 큰 몫을 담당했다. 1982년 6개 구단 체제로 출범한 프로야구리그에는 '롯데자이언츠'가, 1983년 창설된 프로축구 리그인 슈퍼리그에는 '대우로얄즈'가 각각 부산을 연고로 창단돼 부산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A full-page background image of a basketball game. Several players in white jerseys are in mid-air, jumping towards the basket. The scene is captured from a low angle, looking up at the players and the hoop. The lighting is bright, with a strong light source from the upper right, creating a lens flare effect. The overall color palette is dominated by the white of the jerseys and the blue of the court, with some darker tones in the shadows.

9,000

Failures

“나는 9000번의 골 시도를 실패했다.

게임에서 300번이나 졌다.

게임의 승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슛을

맡았지만 26번이나 놓쳤다.

나는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했다.

이게 내가 성공하는 방법이다.”

미국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

01

2019

부산바다마라톤대회

부산을 달린다, 바다를 달린다



전국 최고의 바다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참가하는 동호인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해상 교량 마라톤 대회인 '2019부산바다마라톤대회'가 1만5천여 명의 마라톤 동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0월 6일(일) 벅스코 및 광안대교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2002년 처음 시작된 부산바다마라톤대회는 마라톤대회 중 드물게 해양 교량을 달리는 대회여서 동호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세계적인 국제 해양 도시 부산 널리 알려내

이번 마라톤대회의 스타트는 5km와 10km를 참가한 동호인들이 먼저 스타트했다. 이들은 오전 7시 20분 벅스코 야외광장에 집결해 몸을 풀 다음 부산시립미술관 앞을 지나 스타트 지점인 광안대교 상판으로 이동해 경기를 시작했다. 10km 레이스는 광안대교 상층부에서 스타트해 삼익아파트 해변길과 광안리해수욕장을 달려 벅스코에서 경기가 마무리되었다. 5km 레이스 역시 광안대교 상층부에서 스타트해 제1주탑에서 반환점을 돌아 벅스코 앞에서 경기를 마쳤다. 5km와 10km 뒤를 이어 스타트한 하프마라톤은 트럼프월드 센텀 앞에 마련된 스타트라인에서 가족, 지인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일제히 레이스를 시작했다. 부산바다마라톤대회 레이스는 지난해부터 대대적으로 변경되었다. 하프마라톤은 벅스코에서 영화의전당과 수영강변대로, 광안대교 상층부와 광안리해수욕장을 거쳐 다시 벅스코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변경돼 경기를 즐겼다. 이날 하프마라톤 남자 부문에서는 장성연(1시간11분16초) 선수와 여자 부문에서는 이노미즈코(1시간17분16초) 선수가 1위로 피니시라인을 통과했으며 10km 레이스 남자 부문은 박홍석(34분17초) 선수가, 여자 부문은 이민주(39분26초) 선수가 1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부산바다마라톤대회를 통해 부산을 국제적 도시, 세계 최고의 해양수도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02

2019

체육진흥세미나

스포츠를 공유 릴레이, 양방향 토론형 세미나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11월 22일(금) 오후 3시부터 사상문화원 1층 다누림홀에서 '스포츠 공유 릴레이'라는 주제 아래 재능을 공유하다, 상식을 공유하다, 시설을 공유하다라는 비전으로 양방향 토론형 세미나를 개최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회원단체 임직원, 체육 관련 학과 교수와 학생, 생활체육 동호인 그리고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향후 방향성 설정, 비전 펼치는 장

체육진흥세미나는 부산지역 내 회원단체와 체육 전공자들에게 스포츠 공유 분야의 이론을 적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연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김대회, 김미옥 선임연구위원과 동아대학교 건강관리학과 박현태 교수의 강연으로 이루어졌으며 강연 이후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으로 양방향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매년 개최되는 체육진흥세미나는 주제와 관련된 전문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이론을 체계적으로 적립하고 상호토론을 통해 참석자들의 다양한 시각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체육진흥세미나는 부산체육의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왔으며 앞으로도 부산체육이 준비해야 할 사항과 더불어 말아야 할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발전된 부산체육의 비전을 펼치는 장이 될 것이다. 김동준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은 "스포츠 공유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체육진흥세미나는 기존의 강의형 교육에서 벗어나 비전별 전문가와 직접적인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스포츠 공유라는 가치를 높이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03

생활체육 동호인
화합의 장2019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 시상식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11월 12일(화) 농심호텔에서 '2019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슈퍼컵 시상식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종목별 예선 및 결승에서 입상한 클럽과 대회 진행을 위해 노력한 회원종목 단체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시상식은 성적보고, 입상클럽 시상, 기념촬영 등 순으로 진행되었다.

동호인과 클럽을 응원, 격려하는 마당

'2019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 대회'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주최, 회원종목단체 주관, 부산광역시의 후원으로 개최된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선진국형 클럽대항전이다.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종목이 선정되었으며 선정 종목은 검도, 국학기공, 그라운드골프, 배구, 볼링, 야구, 족구, 탁구 종목으로 작년보다 1종목 더 많은 8개 종목을 선정했다. 3월에서 11월까지 827개 클럽, 17,000여 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해 매주 주중·말 생활체육을 즐기면서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예선 리그전과 본선 토너먼트에서 우승한 종목별 클럽은 이번 2019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 시상식에서 트로피와 부상을 수여받았다. 이번 시상식을 주최하는 부산광역시체육회 김동준 사무처장은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며 그 권위와 위상이 높아가고 있는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은 생활체육 문화를 주도하는 부산을 만드는 데 많은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동호인과 클럽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구분	경기결과
검도	우승 : 청검회 / 준우승 : 동삼관 / 공동 3위 : 신성대검도관, 윤건우검도관
국학기공	우승 : 한마음 동호회 / 준우승 : 부암동호회 / 공동 3위 : 문현동호회, 브레인명상팀
그라운드골프	우승 : 복구클럽 / 준우승 : 금샘클럽 / 공동 3위 : 동래구클럽, 강서구클럽
배구	우승 : 연산클럽 / 준우승 : 배사미클럽 / 공동 3위 : 3040클럽, 백산클럽
볼링	우승 : 사람과 사람들 / 준우승 : BPH / 공동 3위 : 스타, 치얼스
야구	우승 : 위드베이스볼 / 준우승 : 봉봉라이더스 / 공동 3위 : 삼육블랙빈, 야호
족구	우승 : 더이스트 / 준우승 : 형우 / 공동 3위 : 성진, 부산JC
탁구	우승 : 문탁클럽 / 준우승 : 흥연호 클럽 / 공동 3위 : 굿클럽, 티-타임



04

빨리 높이 멀리
달려라제8회 부산
초등·중학생
육상경기
챌린지대회

기초운동기능 신장을 통해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과 육상 우수선수 조기발굴을 목적으로 '제8회 부산 초등·중학생 육상경기 챌린지대회'가 지난 11월 1일(금) 구덕운동장육상장에서 650여 명의 초등·중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힘찬 함성소리와 함께 개최되었다.



꿈나무 발굴, 미래 육상 유망주 키움터

참가 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열띤 응원 속에 열린 챌린지대회는 초등학생 3학년 80m 레이스를 시작으로 트랙경기와 필드경기로 나누어 평소 같고 닳은 기량을 맘껏 펼쳤다. 총 12개 종목(단거리, 중거리, 허들, 장거리, 높이뛰기, 멀리뛰기, 볼텍스 던지기, 터보자브 던지기 등)으로 나뉜 경기는 진행되었다. 참가방식은 1종목 1학교 2인 참가가 가능했으며, 릴레이레이스(4 X 100m)경기도 중복 참가가 가능했다. 다양한 육상 종목의 경험을 통해 꿈나무들의 숨은 재능을 발견하고 미래 유망주 발굴의 기회로 활용되고 있는 '초등·중학생 육상 경기 챌린지대회'는 부산지역 학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육상은 모든 스포츠의 근간으로 가장 기본적인 동작인 달리기, 뛰기, 던지기 등을 경쟁하는 스포츠다. 이는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정신적 함양을 위해 좋은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육상 경기 챌린지대회를 통해 경쟁을 넘어 참가한 학생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되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기르는 대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한편 부산광역시체육회 김동준 사무처장은 “챌린지대회를 통해 미래세대인 어린 학생들이 건강한 체력과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으며 “어린 학생들이 스포츠에 대한 꿈을 갖도록 학부모님과 선생님들께서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국민체육센터
소식

11+12



02

의료임상실험 지원사업
목표인원 달성



부산국민체육센터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임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건강데이터 측정을 지난 4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지도자의 체계적 관리와 심도 있는 상담으로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았으며 목표인원인 3,000명을 약 3개월 가량 앞당겨 달성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사업이 종료되는 12월까지 계속해서 측정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01

꿈나무체육단, 한마음
가족운동회 개최



부산국민체육센터는 지난 10월 27일(일) 꿈나무체육단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마음 가족운동회'를 개최하였다. 단원들은 운동 경기를 통해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배우고 꿈과 끼를 펼치기 위해 가진 이번 행사에는 단원, 학부모, 보다 나아가 지역사회의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자리매김 하였다. 이날 운동회에 참가한 학부모들은 “바쁘게 생활하다보니 가족이 함께 운동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너무 즐거웠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03

어린이회원 화재 및
재난 대피 훈련 실시



부산국민체육센터는 지난 10월 11일(금) 수영장 어린이 회원을 대상으로 비상대피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 훈련을 통해 지도자와 어린이 회원들이 긴급 시황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국민체육센터는 “앞으로도 365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사고 발생 시 매뉴얼에 따라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부산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안내

+ 수영 프로그램

※ 부가세 포함

시간	프로그램	요일	참가비(원)	대상
06:00~06:50	새벽수영	A반 월.수.금 B반 화.목.토 C반 월~금	성 인 : 51,700 노 인 : 48,400	성인 이상
07:00~07:50	생활수영	A반 월~금	성 인 : 67,100 노 인 : 52,800	청소년 이상
08:00~08:50		B반 월~금	청소년 : 60,500	
09:00~09:50	어머니수영	A반 월.수.금 B반 화.목.토	성 인 : 51,700 노 인 : 48,400	성인 여성
10:00~10:50	웰빙수영(격일)	A반 월.수.금 B반 화.목.토	성 인 : 67,100 노 인 : 52,800	
11:00~11:50	웰빙수영(매일)	C반 월~금	성 인 : 51,700 노 인 : 48,400	
14:00~14:50	성인수영	A반 월.수.금	성 인 : 51,700 노 인 : 48,400	성인 여성
	실버수영	화.목(토)	44,000	65세 이상만
15:00~15:50	성인수영	B반 월.수.금	성 인 : 51,700 노 인 : 48,400	성인 누구나
16:00~16:50	돌고래수영	A반 월.수.금 B반 화.목(토)	39,600 33,000	초1~6년 7세~초4년
17:00~17:50	하마수영	A반 월.수.금 B반 화.목(토)	39,600 33,000	초1~6년
18:00~18:50	직장인수영(격일)	A반 월.수.금	성 인 : 51,700 노 인 : 48,400	성인 누구나
19:00~19:50	직장인수영(매일)	C반 월~금	성 인 : 67,100 청소년 : 60,500 노 인 : 52,800	청소년 이상
20:00~20:50	야간수영	토	성 인 : 67,100 노 인 : 52,800	성인 누구나
21:00~21:50			25,300	
15:00~15:50	주말수영(배영이상)	토		초2~6년
12:00~12:50	아쿠아로빅	A반 화.목.토	성 인 : 60,500 노 인 : 52,800	성인 여성
15:00~15:50		B반 화.목.토		
11:00~11:50		C반 월.수.금		
12:00~12:50		D반 화.목.토		
13:00~13:50		F반 월.수.금		
18:00~18:50	월자유수영	A반 화.목(토)	45,000	성인 누구나
06:00~07:30		B반 월~금	성 인 : 53,900 노 인 : 33,000 청소년 : 46,200	청소년 이상
08:00~09:30		C반 월~금		
10:00~11:30		D반 월~금		
17:00~18:30		F반 월~금		

※ 실버수영, 돌고래B, 하마B, 아쿠아트는 토요일 자유수영으로 대체

+ 요가 프로그램

※ 부가세 포함

시간	프로그램	요일	참가비(원)	대상
06:00~06:50	새벽요가	A반 월.수.금	주2일반 38,500 주3일반 38,500 성 인 : 50,600 노 인 : 38,500 청소년 : 45,100	청소년 이상
07:00~07:50		B반 월.수.금		
08:00~08:50		C반 화.목		
		D반 월.수.금		
10:00~10:50	웰빙요가	A반 월.수.금 B반 화.목		
11:00~11:50	생활요가	C반 월.수.금		
14:00~14:50		A반 월.수.금		
15:10~16:00		B반 화.목		
16:00~16:50	아로마요가	A반 월.수.금 B반 화.목		
		C반 월.수.금		
17:10~18:00	직장인요가	A반 월.수.금 B반 화.목		
19:00~19:50		C반 월.수.금 D반 화.목		
20:00~20:50				

+ 생활체육 프로그램

※ 부가세 포함

시간	프로그램	요일	참가비(원)	대상
06:00~22:00 토 16:50까지	헬스교실	월~토	성 인 : 47,300 노 인 : 38,500 청소년 : 38,500	청소년 이상
06:00~06:50	배드민턴	A반 월~목 (강습)	성 인 : 45,100 노 인 : 38,500	청소년 이상
07:00~07:50		B반 월~목 (강습)		
08:00~08:50		C반 월~목 (강습)		
09:00~09:50		D반 월~목 (강습)		
10:00~10:50		E반 월~목 (강습)		
18:00~18:50		F반 월~목 (강습)		
19:00~19:50		G반 월~목 (강습)		
20:00~20:50		H반 월~목 (강습)		
21:00~21:50	탁구	A반 월~목 (강습)	성 인 : 41,800 노 인 : 38,500	성인 이상
18:00~18:50		B반 월~목 (강습)		
19:00~19:50		C반 월~목 (강습)		
16:00~16:50	어린이배드민턴	월.수.금	38,500	초3~6년
16:00~16:50	농구	A반 화.목	33,000	초1~6년
17:00~17:50		B반 월.수.금	초 등 : 38,500 청소년 : 44,000	초4년~중등
06:30~07:20	필라테스	B반 화.목.토	성 인 : 50,600 청소년 : 45,100 노 인 : 38,500	청소년 이상
09:00~09:50		C반 화.목.토		
09:00~09:50		G반 월.수.금		
10:00~10:50		D반 화.목.토		
14:00~14:50		F반 월.수.금		
19:00~19:50		H반 월.수.금		
20:00~20:50		A반 월.수.금		
21:00~21:50		E반 월.수.금		
15:00~15:50	실내축구	화.목	33,000	7세~초3년
16:00~16:50	발레	화.목	33,000	5세~7세
17:00~17:50	음악줄넘기	화.목	38,500	초등학생
17:00~17:50	어린이발리댄스	월.수.금	38,500	7세~초등생
10:00~10:50	에어로빅	A반 월.수.금	50,600	성인 누구나
18:00~18:50		B반 월~금	51,700	
16:00~16:50	발리댄스	월.수.금	성 인 : 50,600 노 인 : 38,500	성인 누구나
19:00~19:50	댄스스포츠	초급 화.목	성 인 : 39,600 노 인 : 38,500	성인 누구나
20:00~21:30		중급 화.목	성 인 : 44,000 노 인 : 38,500	

+ 문화 프로그램

※ 재료 및 교재비 별도

시간	프로그램	요일	참가비(원)	대상
14:00~14:50	속독교실	토	25,000	초등~중학
14:00~14:50	바둑교실	A반 토	30,000	초1~초6
15:00~15:50		B반 토		
15:10~16:00	신나는 과학교실	금	30,000	6~초3
15:10~16:00	동화구연	월	25,000	5~7세
15:10~16:00	블록놀이 (아이링고)	수	30,000	6~7세
15:10~16:00	지니맥	A반 수	30,000	유치부
16:10~17:00		B반 수		

+ 문의전화 : 051-243-5959

북구국민
체육센터
소식

11+12



01 북구스포츠클럽, ‘제4회 전국스포츠클럽 교류대회’ 좋은 성적 거둬



경북 포항시에서 개최됐던 ‘제4회 전국스포츠클럽 교류대회’에서 부산북구스포츠클럽 수영 선수단이 좋은 성적을 거뒀다. 부산북구스포츠클럽은 수영 종목에서 19명의 클럽회원이 참가해 자유형 50m 1위, 접영 50m 1위, 자유형 50m 2위를 기록해 부산 북구의 명예를 드높였다. 선수단은 올해 좋은 성과를 내서 기뻐며 앞으로 열릴 전국 스포츠클럽 교류대회에 여러 종목에 다양한 나이의 선수들이 참가해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 11월 3일까지 열린 ‘제4회 전국 스포츠클럽 교류대회’는 전국 97개 스포츠클럽의 4,5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친목과 화합을 나누는 교류의 장으로 전국 생활체육인의 열띤 열전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북구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안내

+ 수영 성 인 주5회(68,000) / 주3회(44,000) / 주2회(33,000)
청소년 주5회(60,000) / 주3회(38,000) / 주2회(25,000)

프로그램	강습시간	반영	정원
굿모닝	06:00~06:50	초급	
		중급	
		고급	
		연수	
	07:00~07:50	초급	주2회 주3회 주5회
		중/고급	
		연수	
		초/중급	
	08:00~08:50	초/중급	주2회 주3회 주5회
		연수	
		초급	
		중급	
돌고래	09:00~09:50	초급	초급(25명)
		고급	
		연수	
		초급	
	10:00~10:50	중급	중급(25명)
		고급	
		연수	
		초급	
	11:00~11:50	중/고급	고급(25명)
		연수	
		초급	
		중/고급	
거북이	15:00~15:50	성인조합	연수(40명)
	17:00~17:50	성인조합	
	19:00~19:50	초급	25명
		중/고급	
		연수	
		초급	
굿나잇	20:00~20:50	초급	
		중급	
		고급	
		연수	
	21:00~21:50	초급	
		중급	
		고급	
		연수	

※강습인원 15명 이하 시 폐강 또는 합반될 수 있습니다.
※센터의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지도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영 프로그램 강습시간 3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 아쿠아로빅 주2회 44,000원 주3회 55,000원

프로그램	강습시간	반영	정원
아쿠아로빅	12:00~12:50	초급	50명
		중급	80명
	14:00~14:50	고급	

+ 방과후 수영 어린이 46,000원 유아 30,000원

프로그램	강습시간	반영	정원
어린이 수영	12:00~12:50	어린이종합반	초급(25명) 중급(30명) 고급(30명) 연수(30명)
		유아(월수금)	
	14:00~14:50	초급	
		중급	
	17:00~17:50	고급	
		초급	
	18:00~18:50	중급	
		고급	

+ 주말 수영 어린이 35,000원 청소년 40,000원 성인 45,000원

프로그램	강습시간	반영	정원
주말수영	토, 일 11:00~11:50	주 2회	주 2회
핀수영	토, 일 09:00~09:50		

+ (월)자유수영 어린이 30,000원 청소년 40,000원 성인 48,000원

프로그램	운영시간	참가일
(월)자유수영	1부 08:00~08:50	월~금 (주 5회)
	2부 12:00~13:50	
	3부 18:00~18:50	

+ 일일 자유수영

프로그램	운영시간			참가일
자유수영	평일	8:00~8:50		월~금
		12:00~12:50		
		18:00~18:50		
	주말	1부	9:00~11:50	주말/공휴일
		2부	13:00~17:50	
12:00~13:00 수질정화시간(입장불가)				
이용요금	회원		비회원	
	성인	2,300원	성인	3,300원
	청소년	1,500원	청소년	2,500원
	어린이	1,200원	어린이	2,200원

+ 스튜디오 운동

프로그램	강습시간	정원	(월)회비
타바타(월수금)	06:00~06:50	25명	성 인 : 50,000원
타바타(화목)	06:00~06:50		성 인 : 40,000원
요가(월~금)	07:00~07:50		성 인 : 57,000원
요가(월~금)	19:00~19:50		청소년 : 50,000원
중바로빅(월수금)	09:00~09:50	25명	성 인 : 47,000원
뮤직필라테스(화,목)	09:00~09:50		성 인 : 42,000원
파워로빅(월~금)	10:00~10:50		성 인 : 57,000원
파워로빅(월~금)	11:00~11:50		청소년 : 50,000원
파워다이어트로빅(월~금)	20:00~20:50	25명	성 인 : 57,000원
	21:00~21:50		청소년 : 50,000원

+ 스트레칭 운동

프로그램	강습시간	강습일	정원	(월)회비
건강스트레칭(A)	12:00~12:50	월, 화, 목	30명	30,000원
건강스트레칭(B)	19:00~19:50	월, 화, 목	30명	30,000원
바디 체인지(A)	15:00~15:50	월, 화, 목	30명	30,000원
바디 체인지(B)	16:00~16:50	월, 화, 목	30명	30,000원

+ 배드민턴

프로그램	운영시간	정원	(월)회비
배드민턴(월~금)	12:00~12:50	30명	30,000원
	15:00~15:50	30명	30,000원
	16:00~16:50	30명	30,000원

+ 헬스클럽

프로그램	운영시간	(월)회비
건강클리닉	평일 06:30~21:50	성 인 : 46,000원
	주말, 공휴일 19:00~17:50	청소년 : 41,000원

+ 감면할인 대상자

할인율	대상자(중복할인 불가)
50%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기초수급자
30%	만 65세 이상인 자
15%	12개월 등록시
10%	6개월 등록시
5%	3개월 등록시

※감면적용 대상자는 접수 시 관련 서류 첨부을 하셔야 할인적용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이용안내

센터 운영시간	평일 06:00~ 주말(공휴일) 09:00~18:00
센터 접수기간	기초회원 매월 21일~23일 신규회원 매월 24일~마감까지
센터 정기휴관	매주 첫째주/셋째주 수요일
문의전화	TEL 051-365-7070 FAX 051-365-8070

영도국민체육센터
소식

11+12



01 개인정보 침해방지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교육 실시



영도국민체육센터는 지난 9월 26일(목) 법정 의무교육 중 하나인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수집·처리하는 체육센터의 특성상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의 규모와 범위가 매우 크고 넓으며 기관 신뢰도나 이미지 또한 실추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영도국민체육센터장은 “매년 직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해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제고시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02 영도국민체육센터 회원
제27회 영도다리축제 참가



지난 10월 11일(금)부터 13일(일) 3일간 ‘바다를 건너 하늘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27회 영도다리축제’에 마지막 날인 13일(일) 영도대교와 봉래동 물양장 일원에서 체육센터 회원들이 밸리댄스, 음악출렁기, 어린이 방수댄스 무대를 선보였다. 교육지도도 담당자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실력을 맘껏 보여줄 수 있는 내·외 활동들을 확대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0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지난 10월 30일(수) 영도국민체육센터는 직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르다는 잘못된 인식 개선과 인권문화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영도국민체육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도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안내

○ 수영 프로그램

+ 성인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6시]굿모닝수영	주6일	성인	06:00~06:50	월~토(주6일)	65,000
	A반	성인	06:00~06:50	월.수.금	45,000
	B반			화.목.금	45,000
[7시]생활수영	주6일	성인	07:00~07:50	월~토(주6일)	65,000
	A반			월.수.금	45,000
	B반			화.목.금	45,000
[8시]새아침수영	주6일	성인	08:00~08:50	월~토(주6일)	65,000
	A반			월.수.금	45,000
	B반			화.목.금	45,000
[9시]몸짱수영	주6일	성인	09:00~09:50	월~토(주6일)	65,000
	A반			월.수.금	45,000
	B반			화.목.금	45,000
[10시]웰빙수영	주6일	성인	10:00~10:50	월~토(주6일)	65,000
	A반			월.수.금	45,000
	B반			화.목.금	45,000
[11시]웰빙수영	주6일	성인	11:00~11:50	월~토(주6일)	65,000
	C반			월.수.금	45,000
	D반			화.목.금	45,000
[14시]어울림수영	14시	성인	14:00~14:50	월.수.금	45,000
[16시]어울림수영	주5일		16:00~16:50	월~금(주5일)	61,000
	E반			월.수.금	45,000
	F반			화.목	35,000
[18시]직장인수영	A반	성인	18:00~18:50	월.수.금	45,000
	B반			화.목	35,000
[19시]저녁수영	주5일	성인	19:00~19:50	월~금(주5일)	61,000
	A반			월.수.금	45,000
	B반			화.목	35,000
[20시]저녁수영	주5일	성인	20:00~20:50	월~금(주5일)	61,000
	C반			월.수.금	45,000
	D반			화.목	35,000
[21시]아간수영	21시	성인	21:00~21:50	월~금(주5일)	61,000
	A반			월.수.금	45,000
	B반			화.목	35,000

+ 60세 이상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13시]실버건강수영	13시	만60세 이상	13:00~13:50	월~금(주5일)	61,000
	A반		13:00~13:50	월.수.금	45,000
	B반		13:00~13:50	화.목	35,000
[14시]실버건강수영	C반		14:00~14:50	월.수.금	45,000

+ 아쿠아로빅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아쿠아로빅	A반	성인	12:00~12:50	월.수.금	60,000
	B반		12:00~12:50	화.목.토	60,000
	B-1반		12:00~12:50	토	25,000
	C반		15:00~15:50	월.수.금	60,000

+ 어린이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유아 수영	소그룹	B반	만4~6세	17:00~17:50	화,목	60,000
어린이 수영	고래	A반	초등	16:00~16:50	월,수,금	35,000
		B반			화,목	30,000
	상어	A반	초등	17:00~17:50	월,수,금	35,000
		B반			화,목	30,000
	돌고래	A반	초등	18:00~18:50	월,수,금	35,000
		B반			화,목	30,000
토요 수영		B반	초등	15:00~16:40	토	30,000

+ 월 자유수영 프로그램(1일 1회)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자유수영	A반	성인	07:00~09:00	월~금(주5일)	55,000
	B반		14:00~16:00	월~금(주5일)	55,000
	C반		20:00~21:30	월~금(주5일)	55,000

※ 중간에 쉬지 않고 25m를 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재화를 목적으로 건너뛰는 행동은 하지 못합니다.

○ 체육 프로그램

+ 골프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골프 스쿨	A반	중학생 이상	06:00~07:30	월.화.목.금-지도 수.토-연습 -연습시간- 수-수업 시간 토-06:00~17:30	100,000
	B반		07:30~09:00		
	C반		09:00~10:30		
	D반		10:30~12:00		
	E반		12:00~13:30		
	F반		13:30~15:00		
	G반		15:00~16:30		
	H반		16:30~18:00		
	I반		18:00~19:30		
	J반		19:30~21:00		
	K반		21:00~22:30		

+ 탁구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탁구교실	C반	성인	09:00~10:30	월.화.목.금-지도 수.토-연습 -연습시간- 수-수업시간 토-06:00~17:30	성인 55,000 청소년 50,000 어린이 45,000
	D반		10:30~12:00		
	F반	청소년 이상	18:00~19:30		
	G반		19:30~21:00		
	H반		21:00~22:30		
	I반		12:00~13:30		

+ 댄스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댄스스포츠	A반	성인	20:00~20:50	월.수.금	45,000
	B반		21:00~21:50		
시니어(실버) 댄스스포츠	중급	50세 이상	13:00~13:50	화.목	30,000
	초급		14:00~14:50	화.목	30,000

영도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다이어트킥(태보)	C반	성인	18:00~18:50	월수금	45,000
다이어트 방송댄스	A반	청소년 이상	19:00~19:50	월~금(주5일)	성 인 55,000 청소년 50,000
	B반		20:00~20:50		
	C반	성인	10:00~10:50	월~금(주5일)	55,000
어린이 방송댄스	-	초등	17:00~17:50	월수금	40,000
줌바댄스	A반	성인	11:00~11:50	화.목	40,000
	B반		19:00~19:50	화.목	
	C반		20:00~20:50	화.목	
	D반		21:00~21:50	월수금	50,000
	E반		11:00~11:50	월수금	
	F반		21:00~21:50	화.목	
파워로빅	A반	성인	09:00~09:50	월~금(주5일)	55,000
	B반		10:00~10:50		
벨리댄스	A반	성인	11:00~11:50	월수금	45,000
	B반		12:00~12:50	월수금	45,000
	C반		19:00~19:50	월수금	45,000

+ 줄넘기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음악줄넘기 교실	초급	초등	16:00~16:50	월.수.금	40,000
	중급		17:00~17:50		
	토		10:00~10:50	토	25,000

+ 헬스 프로그램(1일 1회 입장)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헬스교실	청소년 이상	06:00~22:00	월 ~ 금 토(06:00~17:00)	성 인 : 44,000 청소년 : 39,000

+ 요가·필라테스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새벽요가	A반	성인	06:00~06:50	월,수,금	40,000
굿모닝요가	A반		08:00~08:50	월,수,금	40,000
웰빙요가	주5일		09:00~09:50	월~금(주5일)	55,000
	A반			월,수,금	40,000
	B반			화,목,토	40,000
	B-1			화,목	35,000
다이어트요가	주5일		10:00~10:50	월~금(주5일)	55,000
	A반		10:00~10:50	월,수,금	40,000
힐링요가	주5일		11:00~11:50	월~금(주5일)	55,000
	B반			화,목	35,000
자세교정요가	A반	청소년 이상	17:00~17:50	월,수,금	성 인 : 55,000 청소년 : 45,000
파워요가	주5일		18:00~18:50	월~금(주5일)	성 인 : 55,000 청소년 : 45,000
	A반			월,수,금	성 인 : 40,000 청소년 : 35,000
	B반			화,목	성 인 : 35,000 청소년 : 30,000
몸짱요가	주5일		19:00~19:50	월~금(주5일)	성 인 : 55,000 청소년 : 45,000
	A반		19:00~19:50	월,수,금	성 인 : 40,000 청소년 : 35,000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활력요가	주5일	성인	20:00~20:50	월~금(주5일)	성 인 : 55,000 청소년 : 45,000
	A반		20:00~20:50	월.수.금	성 인 : 40,000 청소년 : 35,000
주5일	19:00~19:50		월~금(주5일)	성 인 : 95,000 청소년 : 85,000	
C반	11:00~11:50		월.수.금	성 인 : 75,000 청소년 : 65,000	
햇요가	D반		19:00~19:50	화.목	성 인 : 50,000 청소년 : 40,000
	E반		19:00~19:50	월.수.금	성 인 : 75,000 청소년 : 65,000
	G반	20:00~20:50	화.목	성 인 : 50,000 청소년 : 40,000	
필라테스	A반	성인	10:00~10:50	화.목	35,000
	A-1반		10:00~10:50	화.목.토	45,000
	C반		19:00~19:50	화.목	35,000
	B반		20:00~20:50	화.목	35,000

+ 스쿼시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웰빙스쿼시	A-1	청소년 이상	09:00~09:50	화,목,금	성 인 : 70,000 청소년 : 60,000
	A-2		09:00~09:50	월 ~금	성 인 : 100,000 청소년 : 90,000
	C-1		10:00~10:50	화,목,금	성 인 : 70,000 청소년 : 60,000
	C-2		10:00~10:50	월 ~금	성 인 : 100,000 청소년 : 90,000
	E-1		11:00~11:50	화,목,금	성 인 : 70,000 청소년 : 60,000
	E-2		11:00~11:50	월 ~금	성 인 : 100,000 청소년 : 90,000
체력증진 스쿼시	E-1	초등 3년 이상	18:00~18:50	월,수,금	성 인 : 70,000 청소년 : 60,000 어린이 : 50,000
	E-2		18:00~18:50	월~금	성 인 : 100,000 청소년 : 90,000 어린이 : 80,000
직장인 스쿼시	A-1	청소년 이상	19:00~19:50	월,수,금	성 인 : 70,000 청소년 : 60,000
	A-2		19:00~19:50	월 ~금	성 인 : 100,000 청소년 : 90,000
	C-1		20:00~20:50	월,수,금	성 인 : 70,000 청소년 : 60,000
	C-2		20:00~20:50	월 ~금	성 인 : 100,000 청소년 : 90,000
	E-1		21:00~21:50	월,수,금	성 인 : 70,000 청소년 : 60,000
	E-2		21:00~21:50	월 ~금	성 인 : 100,000 청소년 : 90,000

+ 문화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항공드론		초등	16:00~16:50	화	30,000
발레교실	유아	유아	16:00~16:50	화,목	33,000
	A	초등	17:00~17:50	화,목	33,000

※ 재료비 별도

+ 문의전화 : 051-405-0050

강서구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안내

+ 수영 프로그램(월~금)

시간	프로그램	회비	정원
06:00~06:50	새벽수영	성 인 : 60,500원 청소년 : 52,800원 어린이 : 44,000원	130
07:00~07:50			30
08:00~08:50			70
09:00~09:50	건강수영		
10:00~10:50			
11:00~11:50			
14:00~14:50	어린이수영		
16:00~16:50			80
17:00~17:50			90
18:00~18:50	저녁수영		120
19:00~19:50			
20:00~20:50			
21:00~21:50			
08:00~09:00	자유수영	성 인 : 48,400원 청소년 : 44,000원	100
12:00~19:00			

+ 주말 수영레슨(토요일~월 4회 기준)

시 간	프로그램	대 상	회 비	정원
09:00~09:50	토요수영레슨A 토요수영레슨B	초3~성인	60,000원	10
10:00~10:50	토요수영레슨C 토요수영레슨D	어린이		
16:00~16:50	토요수영레슨E	초3~성인		

+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월, 수, 금)

시간	프로그램	회 비	정원
15:00~15:50	아쿠아로빅	60,500원	60

+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월, 수, 금)

시간	프로그램	회비	정원
06:00~22:00	월~금	성 인 : 44,000원 청소년 : 38,500원 ※수시 접수 가능	500
09:00~18:00	토		
09:00~17:00	공휴일		

★ 헬스회원에게는 헬스복, 땀수건 지급

+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월, 수, 금)

시간	스튜디오 1	스튜디오 2	회비
06:10~07:00		모닝요가	성 인 : 55,000원 청소년 : 49,500원
07:00~07:50	바디쉐이핑		
09:00~09:50	에어로빅	바디쉐이핑	
10:00~10:50	보라춤바댄스	바른자세요가	
11:00~11:50	필라테스	웰빙요가	
18:10~19:00	필라테스		
18:30~19:20		파워요가	
19:10~20:00	바디쉐이핑		
19:30~20:20		다이어트요가	성 인 : 48,000원
20:10~21:00	라인댄스 (월, 수, 금)		

+ 일일입장

시설	요일	시간	대상	회비
수영장	월~금	08:00~09:00	청소년 이상	성 인 : 3,300원 청소년 : 2,700원 어린이 : 2,200원
		12:00~19:00		
	토	09:00~18:00	누구나	
	공휴일	09:00~17:00		
배드민턴	월~금	06:00~10:00	청소년 이상	성 인 : 2,200원 청소년 : 1,500원
	월.목	16:30~18:00		
	화.수.금	14:00~18:00		

※ 어린이 생존수영기간 중 9:00~12:00 자유수영 입장불가
※ 수영장 일일입장 제한 : 토·공휴일 11:30~13:00(수질 정화)
※ 수영장 일일입장의 경우 어린이 생존수영 및 기타 사정에 따라 사용제한 및 시간변동
※ 배드민턴(체육관)입장 시 반드시 배드민턴화 착용

+ 접수 안내(현장 접수만 가능)

구분	기간	시간
기존회원(재등록)	매월 20일~23일까지	07시~21시
신규회원	24일부터	07시~21시
토·공휴일 접수 시		09시~17시

※ 일반인, 장애인 누구나 이용가능
※ 매주 일요일은 휴관일이라서 등록 불가
※ 접수기간은 센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모집정원의 50% 미달 등록 시 폐강될 수 있음
※ 헬스는 수시접수 가능

※ 할인제도 안내 ※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유공자증, 유족확인서)
- 장애인(1~3급) 본인 및 보호자 1인(동일프로그램) : 50% 장애인(4~6급) 본인 : 50% (본인 복지카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50% (증명서 매달 제출)
- 장기수강회원 : 3개월 5%, 6개월 10%, 12개월 15%
- 경로우대(만65세 이상) : 30% (본인 신분증 지참)
- 다자녀가족(2000년 이후 출산, 입양) : 10% (다자녀 카드 소지자)
- 2종목 이상 등록회원 : 10%
- 수영 여성회원(만12세~만54세) 보건 할인 : 10%
- 강서구 주민 : 20% (주민등록 등본 지참- 3개월마다 제출)
 - ▣ 중복할인 불가

+ 문의전화 : 051-717-3555

+ 운영시간

평 일	06:00~22:00	공휴일	09:00~17:00
토요일	09:00~18:00	토·공휴일	11:30~13:00 수영장 입장 제한(수질 정화)

+ 휴관일 : 매주 일요일

부산광역시체육회관 프로그램 안내

+ GX프로그램

시간	월	화	수	목	금
9:30~10:20	Park 에어로빅(박선희) 132,000원/3개월	스텝&짐스틱(박선희) 144,000원/3개월	Park 에어로빅(박선희) 132,000원/3개월	스텝&짐스틱(박선희) 144,000원/3개월	Park 에어로빅(박선희) 132,000원/3개월
10:30~11:20	줌바로빅(박선희) 132,000원/3개월	11시 필라테스(박선희) 132,000원/3개월	줌바로빅(박선희) 132,000원/3개월	11시 필라테스(박선희) 132,000원/3개월	줌바로빅(박선희) 132,000원/3개월
11:30~12:20	필라레(박선희) 132,000원/3개월	-	필라레(박선희) 132,000원/3개월	-	-
12:00~12:50	-	12시 필라테스(박선희) 132,000원/3개월	-	12시 필라테스(박선희) 132,000원/3개월	-
19:00~19:50	다이어트댄스(황현숙) 50,000원/1개월	필라테스(백동주) 132,000원/3개월	다이어트댄스(황현숙) 50,000원/1개월	필라테스(백동주) 132,000원/3개월	다이어트댄스(황현숙) 50,000원/1개월
20:00~20:50	다이어트댄스(황현숙) 50,000원/1개월	에어로빅(서은미) 132,000원/3개월	다이어트댄스(황현숙) 50,000원/1개월	에어로빅(서은미) 132,000원/3개월	다이어트댄스(황현숙) 50,000원/1개월

+ 배드민턴 프로그램

시간	월	화	수	목	금
07:30~09:00	남궁안 78,000원/2개월	남궁안 78,000원/2개월	남궁안 78,000원/2개월	남궁안 78,000원/2개월	남궁안 78,000원/2개월
09:30~10:30	남궁안 78,000원/2개월	남궁안 78,000원/2개월	남궁안 78,000원/2개월	남궁안 78,000원/2개월	남궁안 78,000원/2개월
18:30~20:00	조원규 78,000원/2개월	조원규 78,000원/2개월	조원규 78,000원/2개월	조원규 78,000원/2개월	조원규 78,000원/2개월
20:00~21:30	조원규 78,000원/2개월	조원규 78,000원/2개월	조원규 78,000원/2개월	조원규 78,000원/2개월	조원규 78,000원/2개월

+ 농구 프로그램

시간	정원	토요일
08:30~09:50	30명	염은미 99,000원/3개월
10:00~11:20	30명	염은미 99,000원/3개월
11:30~12:50	30명	염은미 99,000원/3개월

+ 헬스 프로그램

헬스		누구나
월~금	06:00~22:00	48,000원/1개월
토	06:00~18:00	

할인제도

이용료의 50% 할인(확인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 및 보호자 1인 50% 할인(복지카드(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전체등급)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0% 할인(증명서 제시)

- 다자녀가족 50% 할인(다자녀 카드 소지자)

▷ 2000년 이후 출산 및 입양으로 자녀를 3명 이상 둔 부모와 그 자녀

문의

인터넷 : www.sports.busan.kr
전화 : 051-500-7992

구·군체육회 소식

11+12

중구체육회
2019 중구체육회 12차 정기 이사회 개최



중구체육회는 지난 10월 30일(수) 코모도호텔 희락정에서 중구 체육회 임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구체육회 12차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중구체육회 임원 변동사항 보고, 2019년도 사업예산 변경, 규정·규약 일부 개정 및 선거관리 구성 등으로 심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이사회를 통해 중구 체육발전과 중구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동구체육회
2019년도 동구체육회 제3차 정기 이사회 개최



동구체육회는 지난 10월 24일(목) 동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동구 체육회 임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체육회 제3차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보고사항으로는 전차회의 요약보고, 장수체육대학 개최 보고, 2019생활체육교실 개최 보고, 어르신체육대회 참가보고, 동구청장배 청소년 3×3 농구대회 개최 보고, 동구민 건강걷기대회 개최 보고 등으로 이루어 졌으며 심의안건으로는 임원해임의건, 관리단체지정건의, 선거관리위원 위촉 서면동의건의, 2019년 동구체육회 임시총회 개최건의, 기타 안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서구체육회
2019 구민생활체육대회 개최



서구체육회는 지난 10월 6일(일) 구덕운동장 외 종목별구장에서 ‘2019 구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축구, 게이트볼, 탁구, 족구, 배드민턴, 볼링, 테니스 7종목에 1,200여 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해 숨은 실력들을 마음껏 발휘했으며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영도구체육회
제2회 영도구협회장배 탁구대회



영도구체육회는 지난 10월 6일(일) 영상예술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영도구탁구협회 동호인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회 영도구협회장배 탁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각 클럽의 동호인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선의의 경쟁을 가졌다. 경기 결과로는 남자A부-이승호(홍연호), 이형석(한결), 남자B부-윤건민(두드림), 여자A부-노경민(넥스트), 여자B부-김정미(알파), 복식A부-정호영, 노경민(넥스트), 김태현, 김추자(조이), 복식B부-윤건민, 신재교(두드림), 이지환, 김미화(알파)가 우승을 각각 차지했다.

구·군체육회 소식

11+12

부산진구체육회

제12회 부산진구 골드올동경연대회 개최



부산진구체육회는 지난 10월 2일(수) 부산진구청 대강당에서 500여 명의 부산진구 구민이 참가한 가운데 '제12회 부산진구 골드올동경연대회'를 개최했다. 1위는 한마음 댄스스포츠동호회, 2위는 연지동호회, 3위는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부설노인대학, 가야동 주민센터, 장려상은 부산진구체조협회(김옥수무용단), 쌍락정 경로당, 황령산 한마음회, 팔각정 경로당, 슈퍼걸스, 가야공원 엄광체육회, 개금종합사회복지관(아이러브댄스) 팀이 입상했다. 대회에 참가한 어르신들은 “지적,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더불어 상까지 받을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전했다.

남구체육회

2019 아시아트레일즈컨퍼런스&제36회 오륙도사랑 걷기축제 개최



남구체육회는 지난 10월 12일(토) '2019 아시아워킹 페스티벌 및 제11회 갈맷길축제'와 연계해 '제36회 오륙도사랑걷기축제'를 개최했다. 참가자 4,000여 명이 환경공원에서 나누어 준 트램모형 간식 상자를 들고 이기대 해안길과 오륙도 스카이워크를 거쳐 백운포체육공원까지 8.6km를 걸으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백운포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에서는 오케스트라 공연, 진해 해군의장대 시범 등으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이후 3,000인분 트램모형 대형비빔밥 퍼포먼스와 시식을 하면서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동래구체육회

제2회 동래구청장기 플라잉디스크대회 개최



동래구체육회는 지난 10월 26일(토) 해화초등학교에서 4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2회 동래구청장기 플라잉디스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그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선수들의 경기력과 결속력을 강화시킨 자리였다. 대회 결과 남자A팀 1위-광남초, 2위-오륙도초, 3위-미남초, 남자B팀 1위-광남초, 2위-해화초, 3위-내성초가 각각 차지했다.

북구체육회

2019 북구청장기 무에타이대회



북구체육회는 지난 10월 27일(일) 덕천동 태한무에타이체육관에서 북구무에타이협회 동호인 195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9 북구청장기 무에타이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장을 가득 메운 각 팀별 동호인들의 응원에 힘입어 참가 선수들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

해운대구체육회

제12회 해운대구청장배 부산광역시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



해운대구체육회는 지난 10월 25일(금) 장산인조잔디구장에서 '제12회 해운대구청장배 부산광역시 그라운드골프대회'를 개최했다. 그라운드골프는 낮은 운동 강도로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실버 스포츠다. 이날 각 구·군에서 참가한 선수 310여 명은 개회식 전부터 경기장에서 다 함께 연습경기를 통해 우의를 다지기도 했다. 대회 결과로는 1위-남구(김창석), 2위-해운대(한혜숙), 3위-사하구(최정애) 선수가 트로피와 부상을 수상했다.

금정구체육회

제12회 금정구청장배 족구대회 개최



금정구체육회는 지난 9월 29일 스포원파크 축구장에서 '제12회 금정구청장배 족구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화창한 날씨 속에 많은 내·외빈들과 동호인들이 참가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경기 시작 후 동호인들은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선보이며 멋진 승부를 겨루었다. 대회 결과로 일반 1부(1위 : 장산, 2위 : 형우, 공동 3위 : 유엔, 히어로), 일반 2부(1위 : 부산JC B, 2위 : 부산중앙, 공동 3위 : 부산JCA, 오륙), 일반 3부(1위 : 일월, 2위 : 금샘, 공동 3위 : 에버, 승학), 일반 4부(1위 : 백양A, 2위 : 상신, 공동 3위 : 해마, 아방가르드), 금정관 내부(1위 : 금샘A, 2위 : 스카이B, 공동 3위 : 금샘B, 하나A), 최우수선수상(정상호), 우수선수상(박경호), 최우수심판상(박강섭), 우수심판상(현일권)이 수여되었다.

사하구체육회

제11회 사하구청장배족구대회 개최



사하구체육회는 지난 10월 27일(일) 을숙도인조잔디구장에서 '제11회 사하구청장배족구대회'를 개최했다. 많은 내빈들이 이 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자리 빛내었으며 사하구 동호인 300여 명이 뛰어난 스포츠맨십과 훌륭한 팀워크를 보이며 그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선보였다. 대회 결과 사하관 내 1위는 징검다리팀, 2위는 보고건A팀, 공동 3위 캐슬A팀, 삼환팀이 차지했다.

강서구체육회

제5회 강서구청장배 어르신종목별경기대회



강서구체육회는 지난 10월 11일(금) 신호체육공원 운동장에서 '제5회 강서구청장배 어르신종목별경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동호인과 많은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번 대회를 통해 강서구 어르신들에게 생활체육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구·군체육회 소식

11+12

연제구체육회

2019년 연제구민 체육대회 개최



연제구체육회는 지난 10월 20일(일) 연제구청 연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연제구민 2,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9년 연제구민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애드벌론 공굴리기(팀 대항), 800m 계주, 줄다리기(동 대항), 협동 공 튀기기, 단체줄넘기(동 대항), 색판 뒤집기(팀 대항) 등의 경기를 통해 구민들의 화합과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내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 결과로는 1위-거제3동, 2위-연산4동, 3위-거제2동, 연산3동, 화목상-연산1동, 연산6동, 연산9동, 질서상-거제1동, 거제4동, 연산8동, 응원상-연산2동, 연산5동이 차지했다.

사상구체육회

제16회 사상구청장기 탁구대회 개최



사상구체육회는 지난 10월 27일(일) 다누림센터 체육관에서 '제16회 사상구청장기 탁구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인원은 21개 클럽, 204명이 출가했으며 부상자 없이 경기가 잘 마무리 되었다. 대회 결과는 남자단체전 1위는 스마트A, 2위 우정A, 공동 3위 애즈원A, 애즈원B가 차지했고 여자 단체전 1위는 주레력키A, 2위 주레력키B, 공동 3위 스마트A, 스마트C가 차지했다.

수영구체육회

2019 하반기 수영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개최



수영구체육회는 지난 9월 29일(일) 수영구국민체육센터에서 '2019 하반기 수영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다양한 종목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그동안 땀 흘리며 노력한 결실을 맺는 날이기도 했다. 하지만 실수를 했다고 질타를 하기 보다는 칭찬과 격려로 참가 선수를 위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대회였다.

기장군체육회

제17회 기장군 초등학교 축구대회 개최



기장군체육회는 지난 10월 26일(토) 기장 월드컵빌리지(인조구장A, B)에서 기장관 내 초등학교 17개교 4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17회 기장군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인기종목인 축구를 통해 어린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축구 선수를 발굴해 축구 발전은 물론 축구 붐 조성에 기여했다.

회원
종목단체
소식

11+12

그라운드골프협회

제2회 진주시장배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 참가



제2회 진주시장배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가 지난 10월 8일(화) 진주스포츠파크에서 전국 의 그라운드골프 동호인 8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 부산선수단은 약 3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경남 진주시가 주최하고 진주시그라운드골프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그라운드골프 동호인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동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는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경기 규칙 아래 공정하게 치러졌으며 경기결과 부산대표 선수단은 단체전 2위, 개인전 3위(이용기)를 차지했다.

펜싱협회

동의대 펜싱부, U-23 아시아선수권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 2관왕 달성



동의대 펜싱부 손정민 선수와 도경동 선수가 '2019 23세 미만(U-23) 아시아펜싱선수권 대회'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우승하며 남녀 동반 대회 2관왕에 올랐다.

태국 방콕에서 지난 10월 23일(수)부터 28일(월)까지 6일 동안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여자 사브르 개인전 결승에서 한국 대표로 나선 동의대 손정민 선수(체육학과 3)는 최수빈 선수를 15-11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남자 사브르 개인전 결승에서 동의대 도경동 선수(체육학과 2)는 태국의 SRINUALNAD VORAGUN 선수를 15-8로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이어 남·여 단체전에서도 우승하며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부산공공 스포츠클럽 소식

부산광역시
거점스포츠클럽

11+12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기계체조 여자일반부 참가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은 지난 9월 18일(수)부터 20일(금)까지 3일간 잠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사전에 개최된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기계체조 종목'에 부산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참가했다. 경기결과 여자일반부 개인종목 도마에서 6위의 성적을 거둬 아쉽게 입상은 못했지만 거점스포츠클럽이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아울러 육성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였다.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제3회 거점스포츠클럽 클럽대항 테니스대회 개최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은 지난 9월 28일(토)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에서 '제3회 거점스포츠클럽 클럽대항 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총 36팀(남자24팀, 여자12팀) 288명이 참가해 서로의 실력을 뽐내며 동호인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남자부는 메트로2클럽이 1위를, 청파클럽이 2위를 각각 차지했고 여자부는 오렌지클럽이 1위를 럭키클럽이 2위를 차지했다. 3년째 개최되고 있는 대회로 매년 많은 동호인들이 참가해 테니스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부산공공 스포츠클럽 소식

부산진구
스포츠클럽

11+12



부산진구스포츠클럽

제1회 지역스포츠클럽 1권역 수영리그전 개최



부산진구스포츠클럽은 지난 9월 1일(일) 제1회 지역스포츠클럽 1권역(부산, 경남) 수영리그전을 개최해 부산, 경남지역 수영인들의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볼 수 있었다.

이번 대회는 부산, 경남 지역 9개 클럽, 2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각 팀 간의 기량을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 대회를 계기로 부산, 경남 지역 스포츠클럽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부산진구스포츠클럽

제1회 지역스포츠클럽 수영리그왕중왕전 참가



부산진구스포츠클럽은 지난 9월 28일(토) 경남 진주에서 개최된 제1회 지역스포츠클럽 수영리그왕중왕전에 참가했다. 부산진구스포츠클럽 수영 전문 선수반은 20명의 학생선수들이 짧은 연습기간에도 불구하고 수준 높은 경기력으로 금 8개, 은 9개, 동 6개를 목에 걸며 종합 3위를 하는 쾌거를 보였다.

부산진구스포츠클럽

2019년 부산광역시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피구대회 후원



부산진구스포츠클럽은 지난 9월 21일(토)부터 10월 9일(수)까지 개최된 '2019 부산광역시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피구대회'를 후원했다. 이날 대회에는 20명의 자원봉사자와 87개 팀 1,515명의 대규모 학생들이 참가해 각 팀 간의 기량을 점검해 보이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부산진구 관내 학교 대상 부산진구스포츠클럽피구 팀을 결성하여 학교스포츠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옷깃만 스쳐도 아픈 대상포진, 극도의 통증을 말하다!

01

대상포진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의 재활성화에 의해 피부에 통증을 동반한 물집이 생기는 질환이다. 과거 수두에 걸린 적이 있거나 수두 예방접종을 한 사람에게는 피부의 신경 분포에 따른 구역, 즉 피부신경절에 수두-대상 포진바이러스가 일생 동안 잠복하는데 잠복해 있던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가 재활성화가 되면 신경 손상과 염증을 유발하고 신경을 따라 피부로 이동해 피부에 특징적으로 군집된 물집을 만든다.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는 고령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지만 스트레스, 피곤, 컨디션 저하 등과도 연관돼 발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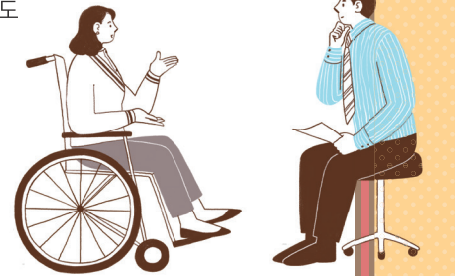


02

구체적인 증상은 어떤가요?

피부의 특징적인 물집 발생보다 평균 4~5일 전부터 피부절을 따라 통증, 가려움, 감각 저하 등의 이상 감각이 나타날 수 있는데 통증은 따가움, 깊은 통증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드물게는 두통, 발열 등 전신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피부 발진은 침범한 신경을 따라 신체의 한쪽에 국한된 띠 모양으로 주로 발생하며 붉은 반점, 물집, 고름 물집이 생긴 뒤 1~2주일이 지나면 딱지로 변하고 떨어진다. 초반 붉은 반점이나 물집은 초기 3~4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새로운 병변이 계속 발생할 수 있고 딱지가 생기는 기간을 포함해 전체적으로는 3주 정도 지속된다.

눈 주변이나 코, 이마 근처에 대상포진이 발생한 경우 바이러스의 안구신경 침범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안과 진료가 필요할 수 있고 귀 주변이나 뺨 근처에 발생한 경우에는 심한 귀 통증, 안면마비, 이명, 난청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이비인후과 진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대상포진에 대해 일반적으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통증이다. 크게 피부 병변과 함께 발생하는 급성 통증과 발진이 없어진 뒤에도 지속되는 포진 후 신경통으로 나눌 수 있다. 피부 병변의 정도와 급성 통증의 정도는 비례하는 경우가 많으며 보통 고령의 환자가 더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포진 후 신경통도 흔한 편이다. 포진 후 신경통은 피부 병변이 호전된 이후 2~3개월이 지난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로 가장 흔하면서도 힘든 합병증이다. 50세 이하에서는 비교적 드물지만 60세 이상에서 반수 이상이 경험하며 대부분 자연적으로 호전되는데 50% 정도는 3개월 이내에, 70% 정도는 1년 이내에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통증이 지속되는 동안 진통제로 증상을 조절할 수 있다.



03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요?

대상포진의 치료는 바이러스 억제와 통증 완화가 주목적이다.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침입하면 완전히 박멸할 수 없으며 항상 잠복해 있으므로 대상포진을 치료하더라도 바이러스는 체내에 남아 있으며 드물지만 재발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항바이러스제를 일주일간 복용하게 되며 입원한 환자에서는 주사로 치료할 수도 있지만 바르는 항바이러스 연고는 효과가 없다. 통증이 발생한 이후 피부발진이 생기기 전 또는 피부 병변 발생 초기에 투여하는 경우 통증의 기간을 줄이고 포진 후 신경통의 발생도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증은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하며 강한 진통제, 신경통 치료제 등을 사용한다. 그 외에도 온찜질, 헬륨네온레이저 광치료, 스테로이드병변 내 주사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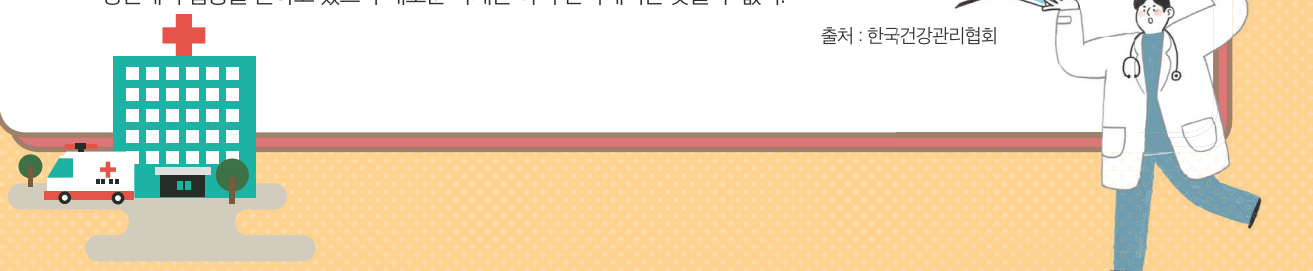


04

막을 방법, 예방이 가능할까요?

2006년 미국 식약처에서 첫 대상포진 백신이 승인된 이후 60세 이상 건강한 사람에게 대상포진의 병력과 무관하게 예방접종을 권했다. 대상포진의 경우, 예방접종을 시행하더라도 대상포진은 여전히 생길 확률이 있으나 대상포진 증상의 중증도나 포진 후 신경통의 발생 빈도와 정도를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수두를 앓지 않았고 예방접종도 받지 않은 사람은 수두의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이 맞으며 급성기 대상포진이나 포진 후 신경통의 치료를 위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시행하진 않는다. 대상포진을 앓은 뒤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지만 적어도 기존 대상포진이 완전히 호전된 이후 건강상태가 좋아진 뒤에 맞는 것을 권하고 있다. 또 대상포진은 면역력 저하가 된 원인이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등의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면역력 관리도 중요하다. 추가로 2017년 새로운 예방접종 약제가 미국에서 승인이 되어 50세 이상 성인에서 접종을 권하고 있으나 새로운 약제는 아직 한국에서는 맞을 수 없다.

출처 : 한국건강관리협회



스포츠 뉴스

News ● 01

2019년 지방체육회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대한체육회는 지난 9월 17일(화)부터 18일(수)까지 양일에 걸쳐 경기 여주시 남한강썬밸리호텔에서 '2019년 지방체육회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대한체육회 김승호 사무총장을 비롯해 17개 시도체육회와 228개 시·군·구체육회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방체육회 임직원들의 역량강화와 소양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최근 체육계 화두로 떠오른 '지방체육회장 선거' 관련 규정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업무 관련자들이 선거 절차와 운영 방식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지방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 표준안 설명회 후에는 지방체육회 회장선거 실무 담당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별도로 진행했다. 아울러, 체육계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스포츠인권 교육, 조직 내 소통과 갈등해결 능력 제고 강의 등 각종 필수교육을 실시해 대한체육회와 시·도, 시·군·구체육회 임직원 간 소통의 장도 마련해 체육인들의 유대 관계 강화를 도모했다. 대한체육회 이기홍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풀뿌리 체육의 근간인 지방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실업팀 육성 지원, 각종 지원 사업 이양 및 확대 등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출처 : 대한체육회

News ● 02

2019 찾아가는 스포츠인권 전문강사 역량강화 교육 개최



대한체육회는 지난 9월 26일(목) 서울 태릉선수촌에서 '2019 찾아가는 스포츠 인권교육 전문강사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스포츠 인권교육 전문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강사의 역할과 자세 ▲효과적인 강의를 위한 의사전달 스킬 업그레이드 방법 ▲고도화된 스포츠인권교육 표준 교안 설명 ▲전문강사 평가 시행 안내 ▲소통의 시간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대한체육회는 이번 교육에서 지난 8월에 새롭게 제작한 '스포츠 인권교육 표준교안'을 집중적으로 교육해 10월부터는 스포츠인권 전문강사들이 새로운 교안으로 스포츠인권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찾아가는 스포츠인권교육'은 전국의 학교운동부, 체육단체 등에서 신청을 받

고 있으며 2019년 10월 이후에는 10,300여 명을 대상으로 약 190회의 스포츠인권교육이 예정돼 있다. 현재 활동 중인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교육 전문강사 63명은 지난 5월 '찾아가는 스포츠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 과정'을 통해 선발되었다. 전문강사들은 6월부터 9월까지 전국 학교운동부 및 운동부팀, 체육 연수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298회에 걸쳐 7,402명에게 '찾아가는 스포츠인권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출처 : 대한체육회

News ● 03

제42기 클린심판아카데미 심화과정 개최



대한체육회는 지난 9월 26일(목)부터 27일(금)까지 1박 2일간 경기 여주 썬밸리호텔에서 심판 공정성 제고와 자질 함양을 위한 '제42기 클린심판아카데미 심화과정'을 개최했다. 이번 클린심판아카데미 심화과정은 기존 양성과정 이수자인 22개 회원종목단체 소속 심판 8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참석자는 각 회원종목 단체의 상임심판, 심판(부)위원장, 심판이사 등이다. 이번 교육은 종목에 따라 2개 유형(기록형, 네트형)으로 구분해 동영상 교육 및 주제 토론, 발표가 진행되었다. 또한 대한체육회 스포츠재능나눔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김원태 아나운서가 '심판의 Why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특별 강의를 실시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클린심판아카데미 심화과정이 심판 상호간 교류와 토의, 전문가로서의 의식 고취 등을 통해 각 종목 심판의 자질을 향상 시키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판의 공정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는 클린심판아카데미는 아마추어 심판을 위한 유일한 전문 교육과정으로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41회(양성과정 36회, 심화과정 5회)에 걸쳐 3천여 명의 이수자를 배출했다.

출처 : 대한체육회

News ● 04

2019 스포츠의과학 세미나 개최



대한체육회는 지난 9월 26일(목)부터 27일(금)까지 양일간 강원도 정동진 썬크루즈리조트에서 올림픽 종목의 국가대표 지도자, 스포츠연구기관, 체육회 임직원 등 약 100명을 대상으로 '2019 스포츠의과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올림픽 TOP10 유지를 위해 실시 예정인 대한체육회 '스페셜케어'사업을 소개하는 등 2020년에 있을 제32회 도쿄올림픽 대회를 대비한 의·과학적 지원 방안과 방향성을 안내했다. '스페셜케어'사업은 제32회 도쿄올림픽대회를 대비해 세계 정상급 국가대표 선수를 대상으로 영양·심리·기술분석·체력·의료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집중 관리를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이다. 스페셜케어 프로그램 관련 주요 강의 내용으

로는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의·과학적 의무 지원 방안 ▲경기력 향상을 위한 종목별 영양 루틴 만들기 방법 ▲국가대표 심리 전략 등이 진행되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유관 단체와 스포츠의과학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종목별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국가대표 선수단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협조 체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출처 : 대한체육회

스포츠 뉴스

News ● 05

경기장 다음 내 인생의 무대는?



대한체육회는 지난 10월 5일(토)부터 9일(수)까지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지도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선수 진로 지원사업을 홍보했다. 대한체육회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기간 중 서울, 경기, 충주, 김천 등지의 축구, 씨름, 수영 등 20개 종목별 경기장을 방문해 취업지원서비스, 맞춤형직업 훈련과정, 찾아가는 운동선수 진로교육 프로그램 등 안내를 실시했다. 진로·취업 상담 희망자의 경우 현장에서 신청을 받아상담을 진행하는 등 진로지원 사업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또 운동선수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 인지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오프라인 인지도 조사 참가

자에게는 홍보 리플릿과 기념품을 온라인 인지도 조사 설문 참가자에게는 추천을 통해 기프트콘을 제공했다. 지난 2013년부터 선수들의 진로 탐색과 설계, 다양한 진로와 직업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통해 성공적인 진로 전환을 지원해왔으며 지속적인 사업 확대로 현재는 개별심층 진로상담, 찾아가는 운동선수 진로교육, 멘토링 프로그램과 강의, 스포츠분야 전문교육, 직업기초 소양교육, JOB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앞으로도 더 많은 현역 운동선수와 은퇴선수들이 경기장 다음 제2의 인생 무대를 찾을 수 있도록 진로 지원을 확대·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 : 대한체육회

News ● 06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결산 및 MVP 선정



‘한국체육의 산실이자 국내 최대의 스포츠제전인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지난 10월 10일(목) 오후 6시 30분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폐회식을 갖고 4일부터 시작된 7일간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평화·화합·공동체전을 목표로 개최된 이번 전국체육대회는 17개 시·도의 총 47개 종목(정식 45, 시범 2) 24,988명의 선수단(선수 18,588명, 임원 6,400명)과 미국, 일본, 독일 등 18개국 1,864명의 해외동포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뜨거운 열전이 펼쳐졌다. 기록으로는 세계신 2개, 세계타이 2개, 한국신 8개, 한국주니어(J)신 6개, 한국주니어(J)타이 4개, 대회신 99개, 대회타이 12개 등 총 133개의 기록을 달성하

며 지난 대회 대비 총 22개의 신기록을 추가했다. 또 다관왕의 경우 5관왕 1명, 4관왕 8명, 3관왕 24명, 2관왕 162명을 배출했다. 시·도별 종합 순위로는 개최지인 서울시가 메달 합계 398개, 총득점 77,331점을 기록해 24년 만에 1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경기도가 64,051점으로 종합 2위, 경상북도는 총 45,893점으로 3위에 올랐다. 2017년부터 매년 3관왕에 올랐던 김서영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개인혼영200m, 개인혼영400m, 계영400m(대회신), 계영800m(한국신), 혼계영400m(대회신)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생애 첫 5관왕에 올랐다. 전국체육대회 MVP에 5번 등극한 수영의 박태환 선수(30·인천시체육회)는 계영800m, 자유형200m, 자유형400m, 혼계영400m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4관왕과 수영 역대 최다 메달(39개)을 동시에 획득했다. 대한체육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정정당당하게 최고의 경기를 보여준 선수단에게 격려를 보내며 내년 열릴 도쿄올림픽대회에서도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다가오는 100년의 스포츠는 건강한 스포츠, 국민 행복을 선도하는 스포츠로 거듭나야 한다”며 “선수, 지도자, 동호인을 포함해 모든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스포츠를 더욱 가깝게 느끼고 즐기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대한체육회

News ● 07

제31기 KSOC 올림픽아카데미와 ‘2019 올림픽데이런’ 개최



대한체육회는 지난 10월 12일(토)부터 13일(일)까지 올림픽 보급 활동의 일환으로 ‘제31기 KSOC 올림픽아카데미’와 ‘2019 올림픽데이런’ 등 각종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10월 12일(토)부터 13일(일)까지는 태릉선수촌과 올림픽공원에서 학생, 체육 관련 단체 재직자, 일반인 등 총 130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KSOC 올림픽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올해로 31기를 맞이하는 이번 올림픽아카데미는 ‘올림픽즐거움과 올림픽대회의 구조적 이해’를 주제로 각종 이론교육, 체육활동, 분임토의 및 발표 등 짝 찬 일정으로 채워졌다. 특히 IOC, 한국체육대학교 올림픽연구센터, 대한체육회, 평창기념재단 등 올림픽대회 관련 단체 소속 전문가들의 질 높은 강의가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체육활동의 일환으로 직접 올림픽데이런에도 참여했다. 아울러 지난 10월 13일(일) 서울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는 ‘2019 올림픽데이런’을 개최했다. 특히 올해 올림픽데이런은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2018년 평창올림픽대회의 감동을 넘어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대회 공동 개최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진행했다. ‘2019 올림픽데이런’은 인터넷 예매를 통해 4,700여 명이 참가 접수를 했으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오륜기가 새겨진 완주 메달과 IOC 참가증서, 평창올림픽대회 당시 인기몰이를 한 오륜 선글라스가 지급됐다. 또 서울시내와 한강변을 달리는 로드레이스(5km/10km) 대회 외에도 ▲올림픽 스포츠 종목 체험

▲VR 체험이 가능한 스포츠 버스 ▲대한체육회 홍보대사(신수지·이정용 등) 및 올림픽 스타 팬 사인회 ▲노라조·10센치와 함께하는 애프터 파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출처 : 대한체육회

News ● 08

제1회 ANOC 월드비치경기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파견

대한체육회는 지난 10월 12일(토)부터 16일(수)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는 ‘2019 제1회 ANOC 월드비치대회’에 3개 종목(카라테, 수상스키, 스케이트보드) 9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카타르 도하에서 펼쳐지는 제1회 ANOC 월드비치대회는 국가올림픽연합회(ANOC : Association of National Olympic Committees)에서 주최하는 초대 대회로, 이번 대회는도하의 상징인 카타라 해변과, 세계 최초로 비치 스포츠만을 위해 조성된 가라파 비치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5일간 개최했다.

“2019 제1회 ANOC 월드비치대회에는 13개 종목 36개 세부경기에 총97개국 1,237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대한민국은 카라테, 수상스키, 스케이트보드 등 3개 종목에 9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ANOC 월드비치대회는 국가올림픽연합회에서 2년마다 개최하는 국제종합경기대회로, 스포츠와 문화, 엔터테인먼트를 복합적으로 구현한 비올림픽 종목 위주의 전세계 비치 스포츠 축제이다.

출처 : 대한체육회

🎯 마음에 차고 너른 기운, 타고난 활의 민족

궁도는 예로부터 우리 민족에게 가장 대중화된 무예(武藝)였다. 역대 왕저의 임금과 문무백관이 즐기고 양반 자제가 반드시 익혀야 할 필수과목이었다. 우리 조상들은 활을 통해 심신단련과 장부로서의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길렀다. 특히 우리 민족은 궁시(弓矢)를 제작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고 활을 다루는 기량도 특출난 걸로 전해진다. 궁도 과연 쉽게 배울 수 있을까? 물론 처음에는 활시위를 당기는 것조차 힘들다. 두 팔은 떨리고 제멋대로 움직이기 일쑤다. 초보자의 경우 한 달 정도 활시위 당기는 연습을 하면 사대(활을 쏘는 자리)에서 활을 쏠 수 있다. 활시위를 당기면 당길수록 궁도의 매력에 점점 빠져든다. 특히 자세를 잡고 활시위를 당기고 있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기가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또 잡념을 사라지게 해 집중력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 심폐기능에도 효과가 좋다. 세상 모든 잡다한 생각을 잊고 무아(無我)의 경지에서 쏜 화살이 과녁에 적중했을 때 맛보는 쾌감은 활을 쏘는 자만의 전유물이다. 활은 총이 출현하기 전까지 원거리에서 적을 가격하는 대표적인 무기였지만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서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무예 종목으로 발달했고 오늘날 서양에서 전해진 양궁과 함께 대중의 인기를 끄는 스포츠 종목으로 발전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궁도 경기는 이충무공탄신기념대회, 대통령기쟁탈 전국시·도대항궁도대회, 전국남녀궁도(선수권)대회, 전국남녀 중·고등학교 궁도대회, 전국궁도종합선수권대회, 전국체육대회 등이 있다.

🎯 유구한 역사, 한민족 생활수단으로 궁시

궁도에 필요한 장비는 활, 화살, 전통, 깃지, 궁대이다. 가장 중요한 활과 화살로 활은 물소뿔·뽕나무·화피·쇠심 등으로 다듬어 민어의 부레로 접착해 만든 각궁(角弓)과 FRP궁을 사용하는데 대한궁도협회에서 공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시·도대항전과 종합선수권대회에서는 각궁만을 사용한다. 화살은 육량전(六兩箭)·편전(片箭)·장군전(將軍箭)·목전(木箭)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예부터 전쟁용과 시합용으로 구분해 사용했다. 그러나 현재 궁도에서는 죽시(竹矢)만 사용하고 조준기와 같은인위적인 기계장치는 부착할 수 없다. 우리나라 궁시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 함경북도 경흥, 성진, 회령 등지와 경상북도 경주에서 타제철촉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활은 고대부터 널리 보급된 중요한 생활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호궁(好弓)인 맥궁은 '각궁'이라고도 했는데 222년(산상왕 26)부터 사용했다. 신라에서는 558년(진흥왕 19)에 내마(奈麻) 신득(身得)이 포궁(砲弓)을 제작했으며 백제에서는 이 기술을 받아들여 더욱 발전시켰다.

삼국의 활 만드는 기술은 점차 고도로 발달되었으며 화살도 점차 다양화됐다. 그러나 지금은 연락습사용(宴樂習射用)의 각궁만이 전해질 뿐이다.

마음을 꿰뚫듯 과녁을 정조준,
또리 든 번민은 훨~훨~!

혼연일체(渾然一體), 무심의 경지 활의 가르침! 궁도(弓道)

팽팽하게 당겨진 화살, 털끝의 작은 움직임에도 화살은 예민하다. 활을 쏘는 순간 숨을 죽이고 매섭게 과녁을 노려본다. 과녁까지의 거리는 145m 대략 150걸음. 체력이 안 되면 과녁에 닿지 못하고 화살은 중도 탈락한다.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정신수양의 무예로 불리는 궁도(弓道), 마음의 번민을 털고 미혹을 견어야만 찰나의 기쁨이 온다. 창공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은 '쏘살같은 우리네 삶'과 닮은꼴이란 깨달음은 덤이다.



🔍 활시위 당기자 인생 꿀팁! 궁도9계훈

- 인애덕행(仁愛德行) : 사랑과 덕행으로 본을 보인다.
- 성실겸손(誠實謙遜) : 겸손하고 성실하게 행한다.
- 자중절조(自重節操) : 행실을 신중히 하고 절조를 굳게 지킨다.
- 예의엄수(禮儀嚴守) : 예의범절을 엄격히 지킨다.
- 엄직과감(廉直果敢) : 청렴검직하고 용감하게 행한다.
- 습사무언(習射無言) : 활을 쏠 때는 침묵을 지킨다.
- 정심정기(正心正己) : 몸과 마음을 항상 바르게 한다.
- 불원승자(不怨勝者) : 이긴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 막만타궁(莫彎他弓) : 타인의 활을 당기지 않는다.

아는 만큼 보인다, ————— 섬세하게 활과 화살 짚다

각궁(角弓)과 죽시(竹矢)를 기준으로 한 활과 화살의 부분별 명칭으로 개량궁인 국궁과 카본화살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주요 부위로는 활의 경우 활을 엮을 때에 시위를 거는 고자, 엮은 활에 시위가 닿는 도고자, 활을 쏘 때 손으로 잡는 줌통, 줌통을 잡은 줌손의 엄지손가락 위의 옆 부분으로 화살이 놓이는 출전피(出箭皮), 화살의 오늬를 끼우는 부분인 시위의 절피 등이 있다.

절피는 보통 시위와 같은 재료를 사용해 시위의 중간에서 약 6cm 정도 상단에 감되 2cm 정도의 길이로 화살의 오늬를 끼우기에 적당한 두께로 감아준다. 활의 줌통 바로 위에 있는 출전피는 화살을 발사(發矢)할 때 화살이 활에서 이탈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최소화하며 비행궤적의 안정을 유지하도록 일반적으로 가죽계열의 소재를 부착한다. 출전피의 두께는 얇을수록 좋지만 화살의 마찰로 패이는 경우에는 교환하고 위치는 활 몸체의 중심점에 가까운 부분이 좋다. 활을 쏘기 위한 만작(滿酌)시에 화살과 평행선을 유지하는 위치가 적당하다. 화살의 오늬를 끼우는 절피나 출전피는 활의 중심보다 약간 위쪽에 위치하는데 이는 활의 중심은 줌통의 중심으로 활을 잡는 줌손이 놓이게 된다. 자연히 출전피의 위치는

66

창공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은
‘쏟아같은 우리네 삶’과 닮은꼴
이란 깨달음은 덤이다. 99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줌손의 엄지손가락 상단부에 위치, 절피도 시위의 중간보다 상단에 위치한다. 이런 관계로 활 날개에 힘의 중심 위치도 출전피 위치로 이동해 활의 상(上)과(下)의 날개 즉 윗장보다 아랫장의 길이가 길어져 활을 만들때 강도를 달리해 아랫장의 한오금을 약간 높은 강도로 제작한다. 화살을 걸고 당겼을때 윗장이 아랫장보다 많이 휘어 활의 모양이 조금은 기형적인 형태로 보이지만 이래야만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활의 시위를 당겼다가 놓았을 때 충격을 흡수, 완화해 주기 위해 정탈목에 붙인 가죽조각인 도고지(도고자)가 있다. 화살은 시위에 끼울 수 있도록 홈이 파인 오늬와 화살이 날아갈 때 균형을 잡아 주는 깃과 축이 있는데 대나무와 꿩 깃을 재료로 만드는 죽시(竹矢)는 마디가 있지만 카본화살에는 마디가 없다. 또 죽시는 각명(刻名)이라고 해 깃간의 대나무에 사용자의 이름을 쓰거나 기호 등으로 표시해 구분을 하거나 카본화살은 보통 깃에 표시를 한다. 그리고 습기에 약한 각궁(角弓)과 같이 죽시(竹矢)도 천연재료인 대나무와 꿩 깃이 비 오는 날 등 물에 젖는 경우 사용에 제한을 받지만 화학재료인 카본화살은 전혀 영향이 없어 전천후(全天候)로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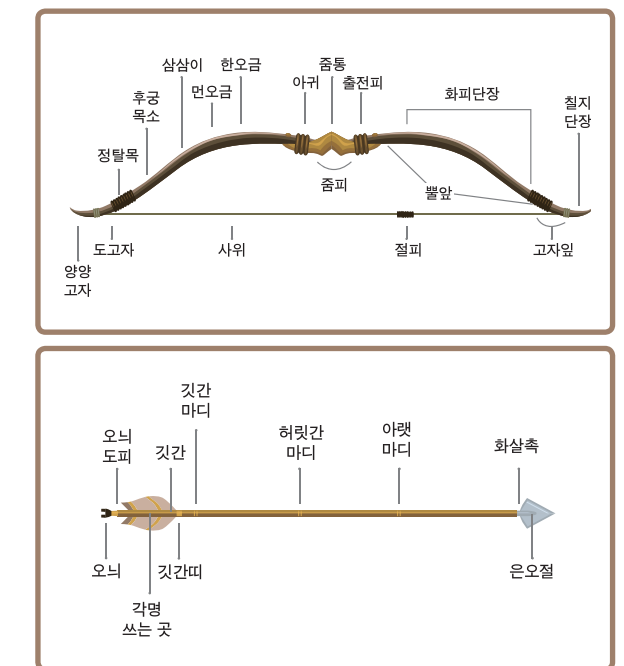
나 바라보기 & 바로보기, 나와의 정면승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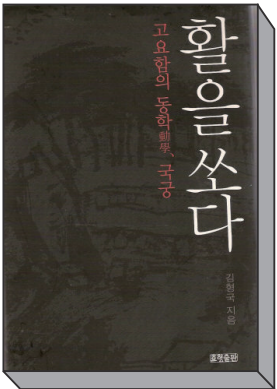
과녁에 화살을 명중하려면 항상 올바른 자세와 균형이 요구된다. 척추를 상하로 곳곳이 세우고 가슴은 좌우로 확장해 종횡으로 균형 잡힌 자세를 잡는다. 궁도는 단전에 힘을 넣는 복식호흡을 하는 운동이기도하다. 복식호흡은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내장의 혈액순환이 도와 내장기능을 튼튼하게 한다.

또 근육의 신축성과 근력을 높이고 신경기능과 지구력을 향상시킨다. 당기고 과녁에 맞추는 과정에서 균형 감각이 발달하는 것. 무엇보다 정신의 안정과 집중이 필요한 운동으로 정서를 안정시키고 침착성과 대범성을 키우기 좋다. 또 동료나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며 예의를 중히 여기며 예(禮)를 배우는 운동이기도 하다. 웃어른과 동료들을 대할 때 예법 등을 접하고 익힐 수 있어 정신함양과 인격수양에 도움이 된다. 올바르게 화살을 다루지 않으면 언제든 사고가 난다. 활이나 화살을 다룰 때는 항상 안전수칙을 지키는 태도와 습관이 중요하다. 궁도는 어디까지나 자신과의 대결이다. 활쏘기의 결과는 자신에게 돌아오게 마련, 상대는 과녁이 아니라 결국 자신이다. 때문에 항상 자신을 연마하고 반성하며 스스로를 극복해야만 한다. 마음의 동요는 곧 활쏘기의 결과로 나타나므로 항상 평정심을 유지, 활쏘기에 임하는 수련이 필요하다. 공자(孔子)는 유학(儒學)의 최고 이념인 인(仁)을 활 쏘는 것과 비유해 군자는 반드시 활을 쏘야 한다고 했다. 궁도는 남녀노소 누구나 일생을 통해 즐길 수 있는 운동이다. 즉 활의 중량강도(重量強度)는 몇 단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팔의 힘이 약한 사람이라도 자기 힘에 맞는 활을 선택하면 무리가 없이 즐길 수 있고 또 다른 운동과는 달리 신체적 핸디캡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 누구나 노력하면 명궁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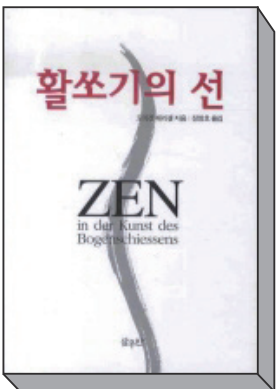


Q 활과 화살 부분별 명칭 그림



BOOK **활을 쏜다 고요함의 동학(動學), 국궁** 지음 | 김형국**나와 세상을 잇고 빠져드는 몰입의 경지**

제목에서 드러나듯 국궁에 대한 연구서다. 활의 사회문화적 내력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주는 국궁의 역사와 진화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활의 구조와 제작, 전국에 흩어져 있는 활터의 현황 등 국궁과 관련된 저변에 대한 매우 꼼꼼한 조사와 연구를 보여 준다. 저자는 사법에 관한 고금의 문헌들을 공들여 찾아 읽은 듯 활쏘기와 관련된 인문적 견식이 두루 넓고 그 안내가 매우 성실해서 실제로 국궁에 입문해 보려는 사람들에게 매우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 개자리, 고자, 도고지, 벌터질, 주살내기, 고침쏘기 등과 같은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도 일일이 달고 있다. 무에서에서 사수의 발의 힘주기를 설명하는 '앞발은 계란을 밟듯이 뒷발은 살모사나 전갈을 밟듯이 하라'라든가, 혹은 활을 쏘 때 '쫘손은 태산을 밀듯 앞으로 버티고, 시위를 당긴 깎짓 손은 호랑이 꼬리같이 펴라'라는 대목들은 그 수사가 명쾌하고 힘이 있다. 저자는 이러한 우리민족을 대궁인(大弓人)이라고 부르며 뛰어난 활 문화와 활 역사를 가졌음을 역설한다. 우리 민족·문화사에 '활'이라는 참신하고 독특한 영역을 추가하고, 국궁의 사라지고 잊혀져가던 역사를 되찾고자 했다. 국궁의 역사·문화적 연원을 짚어보며 활쏘기가 단순한 무예나 레포츠가 아닌,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의미 있는 전통임을 이야기한다. 고대 중국의 병서와 조선 시대 역사 문헌까지 훑으면서 활의 역사를 읽어냈고 우리 역사와 활의 상관관계를 문화사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있다. 또한 활쏘기의 장비와 활터 모습, 활쏘기 대회 등 국궁 문화의 현장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활쏘기의 선** 지음 | 오이겐 헤리겔**몸으로 익힌 것들에 대한 기억**

이 책은 한 서양 철학자가 어떻게 선에 빠져들고, 선에 다가가기 위해 하필 활쏘기를 배우게 되었는가를 해명하는 책이다. 헤리겔은 일본의 한 대학교수로 초빙되면서 궁도와 접하는 기회를 갖는다. 우연히 궁도 스승인 아와 겐조를 만나 활쏘기를 배우는 과정에서 활쏘기가 도(道)이며, 의식(儀式)이라는 사실을 깨우치는 것이다. '활쏘기는 각각 자기의 과녁을 쏘는 것'이라는 가르침 속에서 활쏘기의 궁극적인 단계는 살상도 현란한 기예의 뽐냄도 아니라는 생각에 이르는 순간 그는 위대한 배움의 세계 속으로 성큼 발을 들여 놓은 것이다. 활쏘기의 본질은 '사수가 사수이자 과녁이고 맞추는 자이자 맞는 자인 상태에 드는 것, 다시 말해 깨닫고 나아가는 도임을 이해한 것이다. 선(禪)의 스승들은 활쏘기가 근육을 쓰되 근육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흔들림 없는 활의 발사는 순수한 정신적 몰입의 정점에 도달할 때 비로소 가능해 진다는 걸 강조한다. 이 책은 활쏘기에 관한 책이 아니다. 활쏘기는 하나의 방편일 뿐, 어떻게 서구적 이성중심주의에 젖은 한 철학자가 한 궁도 명인에게 활쏘기를 배우며 직관과 초논리의 세계인 선의 세계에 입문하고 해탈의 기쁨을 발견했는가를 기록했다.

최종병기 활 감독 | 김한민 출연 | 박해일, 류승룡, 김무열, 문채원**사활을 건 활의 전쟁 서막**

역적으로 전략한 가문의 아들 남이. 결국은 아버지마저 처형당하고 만다. 남은 거라고는 여동생 자인과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남겨주신 활이 전부. 이후 두 사람은 아버지의 친구인 김무선 집에서 더부살이를 한다. 전부터 자인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던 무선의 아들 서군은 청년이 된 후, 남이와의 술자리에서 이를 고백했고 자인과의 혼인을 허락해달라고 한다. 하지만 '역적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한 남이는 여동생의 혼례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고... 청나라 군대가 들이닥쳐 백성들을 하나둘 끌고 가기 시작하고 결국 서군과 자인은 혼례를 치르다 말고 청나라 군대에게 끌려가는 신세가 됐다. 남이는 자인을 구하기 위해 활을 들고 청나라 군대를 쫓기 시작하는데, 영화는 초반부터 긴장감을 주며 빠르게 전개된다.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뿐, 바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라는 마지막 대사가 오래 남는다.

신기전 감독 | 김유진 출연 | 정재영, 한다감, 허준호, 안성기**560년간 감춰진 세종의 비밀, 깨어나다**

1448년, 세종 30년. 조선의 새로운 화기 개발을 두려워 한 명 황실은 극비리에 화포연구소를 습격한다. 연구소 도감 '해산'은 신기전 개발의 모든 게 담긴 '총통등록'과 함께 외동딸 '홍리를 피신시키고 완성 직전의 '신기전'과 함께 자폭한다.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명은 대규모 사신단으로 위장한 무장세력을 급파해 사라진 '총통등록'과 '홍리'를 찾기 시작하는데... 명 사신단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대륙과의 무역에 참여하려던 부보상단 설주는 잘못된 정보로 전 재산을 잃게 되고 그러던 어느 날, 세종의 호위무사인 창강이 찾아와 큰돈을 걸고 비밀로 가득한 여인 홍리를 거둬 줄 것을 부탁한다. 상단을 살리기 위해 거래를 수락한 설주는 그녀가 비밀병기 '신기전' 개발의 핵심 인물임을 알게 되고 돌려보내려 하지만 그녀가 보여준 '신기전'의 위력에 매료되고 동료들과 함께 신기전 개발에 참여하게 되는데...

로빈후드(Robin Hood) 감독 | 리들리 스콧 출연 | 라셀 크로우, 케이트 블란쳇, 맥스 본 시도우**일어나고 또 일어나라, 양이 사자가 될 때까지!**

13세기 영국, 평민 출신이지만 뛰어난 활 실력을 가진 로빈 룽스트라이드는 리처드 왕의 용병으로 프랑스 전투에서 대활약을 펼쳐 왕의 신임을 받지만, 전투 중 리처드 왕이 전사한다. 그리고 리처드 왕에 이어 왕위에 오른 존 왕은 폭력적이고 탐욕적인 통치로 오랜 전쟁 후유증을 앓는 영국을 더욱 피폐하게 만든다. 국민들은 가난과 폭정에 시달리고 영국에는 모든 자유가 사라진 것. 한편 전쟁 후 고향으로 돌아온 로빈은 이 모든 참담한 상황에서 자신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유를 위해 왕권에 도전하다 처형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동료들과 함께 부패한 존 왕에 맞서는데... 왕의 충성스러운 군인에서 왕의 반역자로 그리고 세상의 영웅이 된 한 남자가 펼치는 대적할 수 없는 거대한 스펙터클한 이야기.





우리는 말이 통하는 사이 렛츠런파크

우리가족은 렛츠런파크로 렛츠고~!



사계절 썰매장
슬레드힐



짜릿한 승부
경주 관람



어린이를 위한
승마 체험장



자연체험 학습장
빅토빌리지

LetsRun PARK 부산경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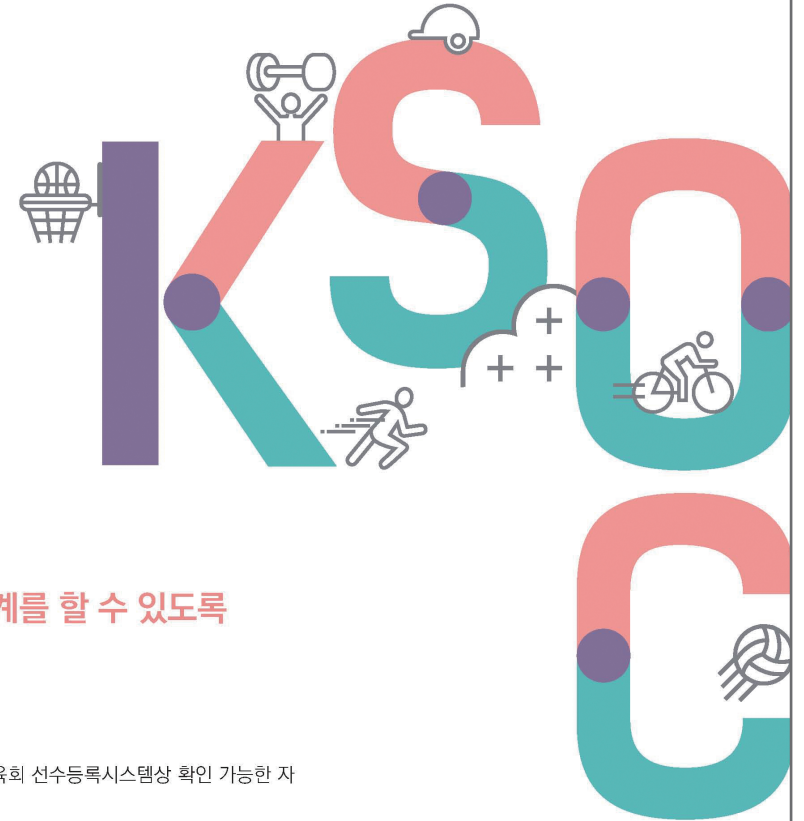
부산 · 경남 최고의 말 테마 가족공원 렛츠런파크

www.kra.co.kr | 대표전화 1566-3333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매년 2,000여억 원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지방세 등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2,000여 명에 이르는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 과도한 마권구매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 · 한 · 체 · 육 · 회 운동선수 진로지원 프로그램



대한체육회에서는 운동(은퇴)선수가 미래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전문 진로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20세 이상 운동/은퇴선수 ※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상 확인 가능한 자

접수방법

전 화 | 02-419-1114

온라인 | 체육인복지포털, welfare.sports.or.kr

KakaoTalk 플러스친구 대한체육회 진로지원센터



운동선수 진로지원 서비스

지원내용

- **진로컨설팅**
 - 초기상담을 통해 적성, 흥미, 역량 등을 고려한 진로계획 수립
 - 면접 및 이력서 컨설팅을 통해 개인별 구직전략 수립
- **멘토링 프로그램**
 - 다양한 분야의 현직자가 멘토로 활동하며 해당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진로 목표 설정 지원
 - 멘토-멘티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멘티의 구직 자신감 향상 및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
- **스포츠 진로교육**
 - 스포츠 분야와 관련된 교육과정으로 전문교육 이수를 통한 개인별 역량강화
- **취업스킬 UP 교육**
 - 입사서류 작성법, 면접 준비, 채용정보 탐색 등 구직스킬 향상
 - 이론 및 실습을 통한 개인별 맞춤 지원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운동선수 진로교육

지원대상

중학교, 고등학교 운동부

지원내용

선수출신의 진로교육 전문강사가 경력개발의 중요성과 준비과정 교육

국가대표 진로상담 프로그램

지원내용



잡(Job)매칭 서비스

신청방법

체육인복지포털 - 은퇴선수 잡매칭(온라인)

지원내용

스포츠 전문 직종에 대한 맞춤형 채용정보 제공